금수강산

6

주체104(2015)
루계 제310호 월간

 ISSN 1727—9062

통일의 한길로 손잡고 가자

2. 이제는 이제는 갈라져 못살아 더이상 못참아
부르고 불러서 통일이 왔던가 통일이 왔던가
(후렴)

3. 겨레여 겨레여 7천만 겨레여 하나의 민족아
달리자 달리자 통일의 한길로 통일의 한길로
(후렴)

차 례

- 우리 민족끼리 -

민족의 힘을 합치는 6. 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여

삼천리강토가 통일에 대한 환희와 열기로 끓어번졌던 때로부터 어느덧 15년이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주체89(2000)년 6월 15일, 온 지구를 뒤흔든 북남수뇌분들의 감격적인 상봉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의 뢰성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민족사적사변이였다.

그것은 기나긴 민족분렬사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고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용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주체89(2000)년 3월,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지구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백두산의 눈바람을 맞으시며 생각하신것은 민족의 운명, 나라의 통일문제였다.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의 분수령을 이룰 력사의 순간을 마련하시려 그이께서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통일문제가 자리잡고있었고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그것을 민족의 가슴속에 통일강령으로 안겨주시였다.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여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새겨진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실 맹세를 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 결단과 신념을 안으시고 백두산지구를 찾으시여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여 분렬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대용단을 내리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9(2000)년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6월 평양에서 진행할것을 합의한 4.8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다.

력사의 그날은 왔다.

온 민족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이 마련되였다.

평양상봉의 나날에 진행된 회담에서 그이께서는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민족끼리를 공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개막식장
주체94(2005)년

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한다는것을 천명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와 소속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온 민족이 하나의 뜻으로 뭉칠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명언 우리 민족끼리를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선언적인 문건에 담을 자주통일사상과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펴나가시였다.

백두산정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작가들의 《통일문학의 새벽》모임 주체94(2005)년

피를 나눈 동족끼리 손을 맞잡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그이의 교시에 남측 성원들은 깊은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민족을 위한 탁월한 명안》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되였다.

주체92(2003)년에 진행된 북남철도련결행사

북남공동선언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았고 전세계를 격동시켰다. 남조선에 **김정일**열풍이 휘몰아쳤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반세기 분렬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조석》,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대전환점을 마련》, 《6. 15남북공동선언채택으로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한 과거력사를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디딤돌을 마련》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이 땅우에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 6. 15통일시대를 펼쳐놓았다.

6. 15공동선언발표로 대화와 협력, 래왕과 교류의 넓은 길이 열리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은 전환적국면을 맞이하였다.

평양과 서울, 금강산에서는 6. 15와 8. 15를 비롯한 주요기념일마다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6. 15가 밝혀준 길을 따라 북과 남은 수십차의 상급회담과 10여차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수백차에 달하는 회담과 접촉, 교류, 공동행사들을 성대히 치르었으며 민족의 통일지향을 반영한 좋은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배길과 륙로를 통해 금강산관광의 길이 열리고 통일국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공업지구가 건설되여 경제협력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경이적인 사변들도 펼쳐졌다.

그뿐이 아니였다.

제주도에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진행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타올라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서로 만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웨칠 때 겨레의 심장에 높뛴것은 북남겨레가 사는 땅도 하나, 피줄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 우리 민족은 갈라져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온넋으로 절감한 감격과 희열이였다.

더우기 2005년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한 6. 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 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것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조직적인 련대련합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6. 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갔다.

6. 15통일시대를 체험하면서 겨레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이 결코 넘지 못할 험산준령이 아니라는것을 확신하였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6. 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은 지난 15년간 한시도 중단된적이 없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유일무이한 애국리념으로 자리잡게 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장들에 공동으로 입장하였다.

이 장쾌한 결실들마다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묻지 않고 민족단합과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그이의 넓은 품에 온 겨레가 안기였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떠받들려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 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되게 되였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도전과 방해책동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투쟁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거세찬 흐름으로 6. 15통일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민족이 힘을 합치는 6. 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통일을 위한 민족의 흐름에 거세찬 활력을 불어넣어줄것이며 조국청사에, 민족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영원히 빛날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60여년만에 형제들과 상봉한 박만수
주체103(2014)년

일 화

온 겨레를 격동시킨 력사적화폭들

새로운 통일리념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6. 15북남공동선언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무엇이 선언의 핵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측 당국자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고,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시고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으로 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건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고 누구나 접수할수 있는 그이의 교시에 남조선당국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출연료

평양상봉의 나날 화기애애한 동포애의 정이 흐르는 연회때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석상에서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문 초안을 보시였고 남측 당국자도 선언문초안을 보고 동의를 표하며 공동선언이 합의되였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였으면 한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의 제의를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그럼 좋다고 하시면서 연탁앞에서 그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드시였다. 그러시고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였음을 알린다고 하시였다.

순간 장내에서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감격의 그 순간을 미처 촬영기에 담지 못한 기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의 안타까운 속내를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배우역을 해달라는가고 호탕하게 웃으시고는 그러면 우리 배우노릇을 한번 더 해보자고 하시며 흔연히 남측 당국자와 함께 다시 손을 잡고 높이 드시였다.

장내에서는 연해연방 사진기들의 섬광이 번쩍이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가 배우노릇을 했으니 출연료를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시자 장내에는 다시금 웃음바다가 펼쳐졌다.

명담중의 명담

북남공동선언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회장의 주탁 맞은켠에 있는 《해사진》을 가리키시며 남측 수행원들에게 저기 전광사진의 노을이 아침노을같은가, 저녁노을같은가고 물으시였다.

모두의 눈길이 사진으로 쏠렸다. 거기에는 거의나 한벽을 차지하다싶이한 사진이 걸려있었는데 해무리진 바다가의 정경을 기막히게 선택하여 찍은 예술작품으로서 아침노을인지 저녁노을인지 얼핏 분간하기가 어려운 수수께끼같은 장면이였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있을 때 한 수행원이 일어나 해뜨는 사진이라고, 민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대답올렸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저 노을은 아침에 해뜰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고 저녁에 해질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라고 하시였다.

사물은 보기탓, 생각하기탓이라는 뜻이 담겨진 그이의 이 말씀에는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탓이라는 의미가 짙게 깔려있었다.

온 겨레가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마음과 마음을 합쳐 힘차게 싸워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앞길은 해솟는 아침과 같이 밝을것이라는 깊은 뜻을 한폭의 사진을 통해 가장 적중한 표현으로 시사해주신 장군님의 유모아는 명담중의 명담이였다.

한가족

남측 일행이 평양을 떠나는것과 관련하여 환송오찬이 마련되였을 때였다. 자기들을 위해 일정에도 없는 환송오찬까지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남측 당국자는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올렸다.

《국방위원장님,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환대해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하였다. 그는 오찬도중에 그이께 국방위원장님은 어디 김씨인가고 무랍없는 물음을 올렸다. 말하자면 본이 어딘가 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께서는 전주 김씨라고 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몹시 아쉬운듯《나는 김해 김씨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진짜 전라도사람이시구만요.》라고 하는데 그의 곁에서 잠자코 듣던 일행중 한 사람이 자기도 전주 리씨라고 하더니 그이의 본과 같다는 사실에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그를 보시며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한가족이라고, 이제야 우리 일가가 만났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장군님의 해학적인 말씀으로 폭소가 터지는 장내에서 오찬회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의 지붕밑에서 살게 될 날을 그리시는 그이의 통일의지와 뜨거운 민족애에 대하여 깊이 절감하였다.

* * *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

지금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기본원동력이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서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인것이다.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전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치이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신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아온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이 하나로 단합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공통된 사상감정에 기초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상정신적인 공통성을 떠나 일시적인 리해관계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합은 실현될수도, 오래갈수도 없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참다운 단합의 정신, 단결의 정신이 깃들어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은 외세의존이 아니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한다는것이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성취한다는것이며 사상과 제도, 신앙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민족의 대단합, 대단결로 이룩해나간다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려는 조선민족의 지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애국애족의 리념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끼리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민족성원들모두가 공감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하나로 굳게 뭉칠수 있게 하는 리념적기초로 된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서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확고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단결은 곧 실천행동의 일치이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마음과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속에서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이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조국땅에 새 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는 단결이 민족의 출로라면 불신과 대결은 곧 파국과 재앙, 전쟁을 몰아오는 화근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분렬리간책동을 짓부시고 내외호전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6. 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수 기

하나된 민족의 힘을 보았다

사람의 한생에서 20일이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20일이 있다. 그것은 6. 15통일시대에 펼쳐졌던 격동과 환희의 사변들과 주체92(2003)년 8월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때 북측 응원단의 한 성원으로 대구에서 보낸 20일간이다.

우리가 비행장에 내리니 통일기를 들고 나온 남녘동포들이 따뜻한 환호를 열렬히 보내였다. 《반갑습니다》와 《휘파람》노래소리가 울리는 비행장은 북측 응원단을 보려고 온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뻐스를 타고 비행장을 벗어나 대구로 가는 수백리 연도에도 손에손에 통일기를 들고 나와 우리를 환영하는 남녘동포들의 열기띤 모습이 끊길줄 몰랐다.

대구에서 우리는 먼저 연회장으로 안내되였다.

연회가 한창 고조되였을 때 노래 《통일렬차 달린다》의 선률에 맞춰 식탁둘레를 돌면서 우리와 함께 통일렬차춤을 추던 남녘겨레들의 환희에 찬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롯한 우리 응원단성원들은 통일이 다된것 같은, 북과 남이 통일을 못할것이 없다는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다음날부터 바쁜 일정속에 날을 보냈다. 그때 대구뿐아니라 남조선 전지역 아니, 세계가 우리 응원단에 대한 소식으로 들끓었다.

경기대회개막식장에 우리가 들어서자 남측 관람자들의 환호는 절정에 다달았다. 개막경기로 진행된 축구경기때 우리가 산뜻한 체육복차림에 응원을 시작하자 남조선관람자들은 우리의 응원에 열정적으로 화답하였다.

우리가 《조국》 하고 소리치면 남측 관람자들은《통일》이라고 화답하였으며 우리가 또 다시 《조선은》 하면 그들은 《하나다.》라고 목청껏 화답하였다.

대회장소인 대구경기장은 순간에 북과 남의 통일열기로 끓어번졌으며 경기를 관람하는것보다 우리의 응원에 화답하는 남녘겨레들의 열기로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죽하면 그때 상황을 놓고 《세계대학생경기대회를 보려고 왔는가 아니면 북측 응원단을 보러왔는가.》라는 여론까지 돌고 남조선의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세계의 소식통들이 우리 응원단에 대한 소식들로 지면을 채웠겠는가.

대구에 체류하는 기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다 인상깊었다. 그가운데서도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우리 응원단과 남측 MBC방송악단과의 합동공연을 할 때 공연을 보려고 왔던 군중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입니다》노래를 우리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합창하던 때를 지금도 잊을수 없다.

나는 그때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북과 남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보내시며 불면불휴의 로고와 뜨거운 동포애, 세련된 선군정치로 력사적인 6. 15통일시대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우리 응원단이 들었던 숙소를 둘러싸고 밤을 새우던 《한총련》성원들과 자원봉사대를 뭇고 우리의 편의를 도모해주던 대구시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북의 미녀응원단을 계속 보기 위해서라도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하던 대구의 한 청년의 말도 생각나 절로 웃음짓게 된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북과 남은 얼마든지 하나로 통일될수 있으며 조선민족은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남녘의 경기장들에서 울린 북과 남의 하나된 목소리, 하나의 지향은 통일을 바라는 조선민족의 하나된 힘을 세계앞에 보여준것이였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이 감히 6. 15의 열매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려고 미쳐날뛰고있으나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간직된 그날의 환희, 6. 15의 정신은 지울수도, 없앨수도 없으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나는 하루빨리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나의 적은 힘이나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마음다질뿐이다.

평양시 서성구역 장산동
김미향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갔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특기할 민족사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날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새시대인 6. 15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된 경이적인 현실은 비록 사상과 리념, 제도가 다르고 정견과 주의주장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조국통일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겨레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열정을 심어주고 북과 남이 통일의 길에서 힘을 합쳐나가야 할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을 북돋아주는 우리 민족끼리는 온 민족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 단합과 단결의 리념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전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경진

갈라질수도 헤여질수도 없다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온 나라에 통일의 열기가 차넘치던 때로부터 어느덧 15년이 되여온다.

솔직히 말하여 그때 나는 완행렬차처럼 굼뜨게 오던 통일이 점점 속도를 높여가며 겨레의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충격에 가슴이 뻐근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지금도 6. 15공동선언에 대한 생각을 하노라면 오늘로 이어진 어제에 대한 회억, 오늘로부터 이어질 래일에 대한 상상의 나래가 끝없이 펼쳐진다.

통일, 그것은 온 겨레가 바라고바라는 간절한 소원이다. 누구나 그러하지만 남녘땅에 혈육을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더우기 일일천추로 바라고 또 바라는 념원이다.

그런 념원을 안고 기나긴 반세기이상 세월을 보내온 사람들중에는 나도 있다.

수십년의 돌기를 돌고돌며 여든을 넘긴 내 가슴속에 그리도 깊이 간직하고있는 통일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을 나는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잠간이나마 풀어보게 되였다. 장장 60여년간 생사도 알지 못하였던 동생들을 꿈에서처럼 만나보게 되였던것이다.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이 나를 찾아와 남조선에 누가 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헤여질 때 열병을 앓고있었으므로 사망하였으리라고 생각)는 사망하고 동생들 몇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후 내가 금강산에서 그처럼 그려보던 동생들을 만나보게 될줄이야.

사실 나는 강원도(남) 양구군 남면 구암리에서 살았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곳은 공화국북반부 땅이였다. 어머니는 인민반장을 하였고 리민청위원장을 하던 언니가 조선인민군에 입대한 다음부터는 내가 군인민위원회에서 일하였다. 나라가 해방되여 다섯해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된 날과 달들이였다.

그런데 미제가 일으킨 전쟁은 온 나라를 페허속에 잠그어놓았으며 우리 가정도 뿔뿔이 헤쳐놓았다. 내가 언니의 뒤를 이어 손에 총을 잡고 군복을 입자 동생들은 열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있는 어머니를 두고 가겠는가고 하면서 나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조국이 있고야 가정도 있기에 나는 인차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동생들과 약속하고 집을 나섰다. …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60

여년을 넘긴 오늘도 이어지지 못하고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생각하며 내가 상봉장소에 서있는데 《누나!》 하며 웬 사람들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아무리 보아야 그들을 알수가 없었다. 어리둥절해있는 나를 보며 그들은 누나는 꼭 어머니를 닮았다며 자기들의 이름을 대는것이였다.

나는《돈빈아!》,《돈방아!》하고 6살, 4살때에 헤여진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품에 와락 그러안았다. 그들은 그들대로 내 품에 안겨들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생들을 두고 60여년세월 그렇게도 …)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그러나 나도 그 생사를 전혀 몰랐던 사랑하는 동생들을 찾아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차올라 저도모르게 눈굽이 젖어들었다.

나는 미처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자식이 부모에게 속마음을 터놓는 심정으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가슴속에 품고있던 이야기를 쏟아놓고 또 쏟아놓았다. 손에 총을 잡고 락동강까지 나갔던 이야기, 평양건설건재대학(당시)을 졸업한 남편과 함께 평양시복구건설에 참가한 이야기, 자랑많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등 가지가지의 기쁨과 행복에 넘친 이야기들을…

나의 말을 다 들은 돈빈은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통일은 꼭 온다며 그때에 온 가족이 한데 모여앉자고 하였고 돈방은 자기 아들이 북의 처녀한테 장가를 들겠다고 아직도 혼사를 치르지 않고있다는 우스개말까지 하였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우린 비록 북과 남에서 살고있지만 갈라질수도, 헤여질수도 없는 한피줄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그렇다.

우리 조선민족은 갈라질수도, 헤여질수도 없는 한피줄이기에 가정의 소원, 겨레의 소원인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노력, 지식과 재능을 깡그리 다 바쳐 자주통일을 위한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3동
조매숙

남녘의 혈육들과 함께

조선속담 (욕심)

-같이 우물 파고 혼자 먹는다

다같이 힘들여 일한 결과에 얻은 열매를 몽땅 혼자서 차지하려는 욕심많은 사람에 대하여 이르는 말.

-공짜라면 써도 달다 한다

공짜라면 맛이 쓴것도 달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공짜를 좋아하는것을 빙자해서 이르는 말.

-굶은 개 부엌 들여다보듯

게걸스럽고 치사스럽게 남의것을 바라는 모양을 욕으로 이르는 말.

-남의 고기 한점이 내 고기 열점보다 낫다

지난날: 공연히 남의 재물만 좋게 보면서 탐내는 사람을 두고 이르던 말.

-다람쥐 밤 까먹듯

욕심스럽게 먹는것을 롱으로 이르는 말.

-단꿀에 덤비는 개미떼

눈앞의 리익을 놓고 앞뒤를 생각함이 없이 덤벼침을 비겨이르는 말.

-닭은 콩 먹기

그만둔다 그만둔다 하면서도 마감까지 계속하는것을 이르는 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지난날: 한가지 바라던것을 이루면 그보다 더 큰 욕심이 생기듯이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이 커진다는것을 비겨이르던 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6월은 조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더해주는 뜻깊은 달이다.

지금으로부터 51년전인 주체53(1964)년 6월 19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이날을 맞는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돌이켜지고있다.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을 시작하시는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도록 이끌어나가시였다.

인류정치사를 더듬어보면 정치가들치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인민을 위한 정치에서 성공한 정치가는 별로 없다.

허나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펼치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였다.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가시던 나날에 그이께서 남기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다.

그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주체95(2006)년 12월초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희천경질유리그릇공장 종업원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였다.

그 편지에는《장군님, 죄스럽습니다. 장군님과 한피줄로 이어진 우리 로동계급의 량심은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키워 내세워주신 아버지에게서 그릇값을 받는 자식도 있습니까. …》

티끌만 한 가식이나 미사려구도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따르고 받드는 로동계급의 심장의 목소리가 절절히 울리는 편지였다.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여 경질유리그릇값을 다시 내려보내니 공장운영에 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소한 특전, 특혜도 바라지 않으시고 인민의 리익에 대해서는 털끝만한 침해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이렇게 되여 그릇값은 다시 공장에 내려가게 되였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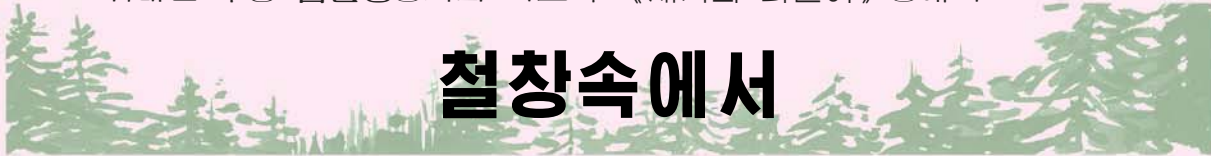
어느해인가는 나라사정이 여의치 못한 조건에서도 인민들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교시하시며 인민을 위한 어느 한 공장건설을 1년남짓한 기간에 끝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 어느해인가는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건설장에 온것은 언제를 어느정도 쌓았는가 하는것을 직접 볼뿐만아니라 침수구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살림집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고 왔다고 뜨겁게 교시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하나의 로선, 하나의 정책을 세워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시하였으며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명실공히 인민의것으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게 되였다.

하여 조선로동당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당으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고 계신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현남

철창속에서

(전호에서 계속)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널리 리용하고있던 레배당이 바로 그 레배당이였다. 원래 손목사는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는 길림의 기독교신자들과 독립운동자들속에서 무시할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신자들속에는 손정도처럼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조선을 위한 기도를 드리였고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여도 망국의 불행을 덜어달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그들의 순결한 신앙심은 항상 애국심과 련결되여있었으며 평화롭고 화목하고 자유로운 락원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념원은 시종일관 나라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천도교와 불교계신자들의 절대다수도 애국자들이였다.

손정도가 류길학우회 고문이였으므로 나는 그와 자주 상종하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것이 분하고 애석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을 위해 투신하라고 격려하군 하였다.

내가 길림에 와서 육문중학교에서 3년동안이나 공부할수 있은것은 손정도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때문이였다.

손정도목사는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겨우 유지되여가는 우리 집의 구차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나에게 학비를 여러번 보태주었다. 목사의 부인도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 명절때면 그 부인이 나를 청해다가 조선식으로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다. 그 집에 가서 먹던 토끼고기를 넣은 두부지지개와 쫀드기떡이 참말로 별맛이였다. 쫀드기라는 풀은 잎에 보드라운 털이 난것이였는데 냄새도 없고 독도 없었다. 손목사의 집에서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그 풀로 떡을 해먹었다고 하였다. 그날 내가 목사의 집에서 먹은 떡은 북산공원에 가서 뜯어온 쫀드기로 만든것이였다.

손정도에게는 아들 둘에 딸 셋이 있었다. 길림에서 우리의 운동에 관여한것은 둘째아들 손원태와 막내딸 손인실이였다.

손인실은 그때 황귀헌, 윤선호, 김병숙, 윤옥채 등과 함께 조선인길림소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내가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있을 때 나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주었다.

하루는 간수가 새 수인 한사람을 우리 감방에 던져넣고 갔다. 어찌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려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근이였다. 1929년 봄에 군벌당국에 갑자기 체포되여 생사를 알길없던 그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가 체포된것은 종파분자들의 허위밀고때문이였다. 강명근은 주중청총사건때문에 종파분자들의 보복을 받은것이다.

종파분자들은 려신청년회 대표들이 지창자에서 열린 주중청총모임에서 탈퇴하여 자기들의 무모한 행동을 폭로하는 성토문을 낸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모해하던 끝에 교하에서 한 청년이 병으로 죽게 되자 강명근네가 그 청년을 독살한것처럼 군벌당국에 밀고하였다.

나는 애매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였다고 눈물을 흘리는 강명근에게 혁명을 하겠다고 큰뜻을 품고 나선 청년이 그쯤한 일에 의기를 꺾이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으니 군벌당국과 끝까지 싸워서 죄가 없다는것을 증명하라고 고무해주었다.

강명근은 그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말해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견결하게 싸웠다.

그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전기간 깨끗하게 살다가 해방된 다음 조국에 돌아와 우리 당의 파업을 받고 우당과의 사업을 성실하게 하였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강명근이 살아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여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이 기별이 강명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것 같다. 그는 나와의 상봉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뇌출혈을 하였다.

그때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길림시절을 두고 뜨거운 회포를 나누었을것이다.

나는 감방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남긴 경험과 교훈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경험도 더듬어보았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시위투쟁도 해보고 파업투쟁도 해보고 의병투쟁도 해보았으며 독립군운동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투쟁은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운동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였는데 왜 투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기만 하였는가?

우리 나라 반일투쟁대렬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여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반일항쟁의 첫 봉화를 들고 8도강산을 주름잡던 의병의 대오는 상하일치를 이룩하지 못하고 분렬되여있었다. 왕조정치의 회복을 바라는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기성질서의 개혁을 부르짖는 평민출신의병들사이에는 심각한 리념상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고있었는데 이것은 의병의 전투력을 높일수 없게 하였다.

구제도의 복구를 절대리념으로 삼고있던 일부 의병장들은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기 위해 전공을 다투는 싸움까지 하여 대오를 분렬시키였다.

평민출신의 의병장들은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련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병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독립군의 실태도 이와 별로 다른것이 없었다. 독립군은 조직자체에서부터 분산성과 산만성을 드러냈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고있던 여러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3부로 통합된 다음에도 파쟁은 계속되였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상층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갈라져 권력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 큰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전 설

《호박풍년이 들었다》

해방전 일제의 패망상을 야유한 전설들가운데는 《호박풍년이 들었다》도 있다.

전설이 생겨난 때는 주체26(1937)년, 그때로 말하면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아시아제패를 위한 침략책동에 기광을 부릴 때였다.

바로 그러한 때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보천보와 구시산에서 되게 얻어맞고 기절초풍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토벌》하겠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함흥역에서 있은 조선주둔군 함흥74련대의 출병《의식》에서 련대장(김석원)이라는자는 유격대 《초전박살》을 부르짖으며 긴칼까지 휘둘러댔다.

그러나 간삼봉에서 전투가 시작되자부터 된매를 맞은《토벌》대의 눈에 유격대는 한명도 보이지 않는데 산지사방에서 총알이 비발치듯 쏟아져 매번 공격을 해도 맨발로 바위를 차는격이였다. 게다가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노래소리까지 우렁차게 골짜기에 울려퍼졌다.

악에 받친 련대장은 칼을 뽑아들고 졸병들을 계속 공격에로 내몰았으나 역시 헛일이였으며 나중엔 그마저 오른다리에 총알이 관통되여 간신히 살아 도망쳤다.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련대장이 머리를 들어 전장을 살펴보니 전장에는 온통 졸병들의 시체만이 널려있었다. 죽은 놈들을 끌고 갈 일이 아뜩하여 곧 살아남은 졸병들에게 죽어 자빠진자들의 목을 잘라 자루에다 몇개씩 처넣게 하였다. 그러고도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그 자루들을 다 나를수 없어 농민들까지 동원시켜 그것을 나르게 하였다.

한 농민이 마대짐을 가리키며 경비병에게 무엇인가고 묻자 그자는 퉁명스레 《보면 몰라? 호박이야, 호박이란 말이야.》라고 하였다.

《거참, 모를 일인데요. 군대어른들이 간삼봉에서 호박농사를 짓는걸 난 보지 못했는데…》

《어이, 어이, 우리나 호박농사 지었다, 지었어!》

《예- 거 호박농사가 굉장한 풍년이웨다. 좋은 국거리니 많이들 자시우.》

일제는 이렇게 자루의 비밀을 극비에 붙였다. 떠날 때에는 요란하던 함흥역이 《호박대가리》마대를 져나르느라 초상난 집이 되였다. 승전고가 아니라 장송곡이 울리였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사람들속에서는 《호박대가리》, 《호박풍년이 들었다》라는 전설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일제군경들속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는 아예 맞서지도 말라는 말이 나돌게 되였다.

* * *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때로부터 어느덧 70년의 년륜을 아로새기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고있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투쟁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당의 기본리념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혁명적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람중심의 주체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하고있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나가는데서 가장 옳바른 사상적무기는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 없기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웠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력사는 곧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의 력사이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성패는 어떤 사상을 출발점으로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조국이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할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이 당건설을 철저히 **김일성-김정일**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조직사상적으로 가장 공고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가 튼튼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전변된것은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다.

정당정치로 특징지어지는 현세계의 정치무대를 둘러보아도 조선로동당과 같이 사상의 일색화가 확고히 실현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선 당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지난 세기 말엽 일부 동유럽나라들에서 집권당이 붕괴되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의 불패성은 더욱 공고화되였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였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았기에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리익과 지향실현에로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로선과 정책을 하나 세워도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시책들을 끊임없이 실시해나가고있다. 한가지 일을 해도 인민이 덕을 보고 인민이 좋아하게 해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인민을 위하여 무료교육, 무상치료는 두말할것도 없고 무상으로 살림집을 쓰고 살도록 하고 세금이라는 말자체를 없앤 사실만 놓고서도 조선로동당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을 이룩할것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철웅

그 무엇도 꺾지 못한 불굴의 신념과 의지

지난 세기 40여년에 걸치는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조선이 해방된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의 선렬들이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항일의 피어린 고난과 시련의 언덕들을 더듬어볼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자주의 신념을 안고 항일의 선렬들이 발휘한 불굴의 기개가 오늘도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질데 대한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진리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신념의 기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지만 조선의 혁명가들이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대신할수도 없는 자주적권리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시였으며 대원들을 조국해방위업수행에 한몸 다 바쳐나서도록 하시며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하기에 항일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국의 해방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고 중중첩첩 막아나서는 험난한 길을 맞받아 헤치며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투쟁을 벌리였다.

아사, 타사, 동사를 동반하는 고난과 시련의 그 나날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제1차 북만원정의 나날 항일의 선렬들은 조선혁명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면서 그이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를 부르며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일제의 포위를 헤쳐나갔다.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100여일간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눈이 허리를 치고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대륙의 혹한과 설한풍을 이겨내며 극도의 식량난으로 생눈을 씹어삼키면서 매일같이 앞뒤 좌우에서 악착하게 달려드는 수천수만의 적들과 피어린 전투를 하여야만 하는 속에서도, 적들의 비렬하고 너절한 각종 악선전과 《귀순공작》속에서도 동요하거나 락망하지 않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굳센 투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을 승리적으로 뚫고나갔던 그들이였다.

그들은 일제가 방대한 정예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유격구의 군대와 인민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토벌》과 기아, 봉쇄작전을 악랄하게 감행하던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끝까지 싸웠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1941년, 일제가 급변하는 세계정치정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악랄한 《토벌》을 감행하며 혁명군대오를 와해시키기 위해 온갖 음흉하고 교활한 책동과 허위날조를 다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때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사령부를 찾아 산중에서 헤매다가 허기져 쓰러졌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가면 따뜻한 잠자리도, 먹을것도 생길수 있었지만 마지막힘을 모아 나무껍질을 벗기고 숯덩이로 누가누가 끝까지 혁명을 위해 싸우다 굶어죽었다는 글을 남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대원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살아 대오에 다시 서게 되였다.

그들뿐이 아니였다.

일제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녀투사도, 낯설은 광야에서 눈을 감으면서 《미래를 사랑하라!》고 부탁한 투사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나무에 새기며 혁명절개를 더욱 굳게 간직한 투사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고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그 무엇도 꺾을수 없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투쟁하였기에 항일의 선렬들은 끝끝내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해방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항일혁명선렬들의 불멸의 위훈은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세세년년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온 나라에 차넘치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조국땅 그 어디서나 총공격전의 기상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백두산이 명실공히 조선민족의 넋이 깃든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빛나게 된것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을 거점으로 하여 침략자 일제와의 투쟁을 벌리신 그때부터였다. 그이께서 온갖 시련과 고초를 다 겪으시며 피로써 헤쳐오신 백두의 눈보라, 칼바람속에서 조국해방의 봄이 왔으며 우리 민족의 고귀한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그때 항일혁명투사들은 익측도 후방도 없는 속에서 사나운 눈보라에 얼고 생눈을 삼키면서도 수령님만 계시면 조국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일제의 공격을 언제나 맞받아나가며 주동적인 전투를 벌려 적들을 전률케 하였다.

준엄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창조되고 백두밀림에 나래쳤던 이 혁명정신은 지나온 년대들마다에 그대로 이어져 조국인민은 일제를 쳐물리친데 이어 미제를 격파하고 빈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조국의 력사적단계들마다에서 발휘된 천리마의 정신, 속도전의 정신,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군인정신도 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오늘 이 투쟁정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 높이 승화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10월 백두산에 오르시여 혁명가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아야 한다고,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에도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 정신으로 과감히 뚫고나감으로써 올해를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되여있다.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올해를 조국력사에서 가장 뜻깊은 해로 빛내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은 지난 3년간 그이의 령도밑에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다 못할 기념비적창조물들인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의 건설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 등의 비결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이룩한 고귀한 창조물임을 긍지높이 되새겨보며 장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살아도 죽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신념과 기개가 조국수호의 총대를 틀어잡은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들마다에 세차게 맥박치고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최첨단무기들이 연구완성되여 원쑤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청천강전역과 세포지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몰아치는 과학연구기지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오기 위해 들끓는 농업,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전역들에서 세찬 불길마냥 타래치며 경이적인 전변들을 련이어 안아오고있다.

참으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대도 절대로 바꿀수 없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대진군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들만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

본사기자 리명성

백두산천지호반

다함없는 그리움, 칭송의 열기

지난 4월, 조국땅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천만군민의 결의로 뜨겁게 타번졌다.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을 모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금수산태양궁전, 만경대고향집과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이 어려있는 곳들을 찾고 또 찾았다.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평양과 각 도에서 진행된 제17차 **김일성**화축전과 **김일성**화전시회들에서는 장장 수십성상 오로지 조국과 인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세차게 굽이쳤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미술전시회와 전국서예축전, 마라손경기대회와 마라손애호가들의 달리기경기,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등 다양한 태양절경축행사들도 성대히 진행되였다.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높이 칭송하였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은 우리 조국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천만년 빛을 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뿐만아니라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대표단 등 해외동포대표단들과 해외동포들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였는가를 절감하게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태양절경축행사는 조국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성대히 진행되였다. 일본, 로씨야, 중국, 미국 등 해외에 있는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대회와 강연회, 회고모임을 비롯한 경축모임과 행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고 하면서 력사와 민족앞에 쌓으신 거대한 업적과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격찬하였다.

더우기 중국에서 진행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행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축행사에는 최은복 재중조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재중동포들

결의편지채택모임이 진행되였다.

인총련합회 의장과 총련합회일군들, 산하조직대표들, 동포예술인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일군들,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지사성원들, 길림시에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 길림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길림육문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중국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먼저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에서 최은복의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를 다녀가신 5돐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성상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떨치는 불패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수령님처럼 독창적인 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며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는 일찌기 없었다고 칭송하였다.

재중동포들은 태양의 꽃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과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 그리고 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는 북산공원 약왕묘 등을 돌아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을 뜨겁게 돌이켜보았으며 그이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을 못잊어 그리는 자기들의 마음을 예술공연에 담아 펼쳐보임으로써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길림지구에서뿐아니라 중남지구와 료녕지구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결의편지채택모임을 비롯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지난 4월에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조국의 오늘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태양조선은 영원히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절감하게 하였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박창혁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북산공원 약왕묘를 찾은 동포들

경축공연을 관람하는 동포들

무대에 올라 춤을 추는 재중동포

경축공연의 일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을

조선동해의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원산시에 원산구두공장이 있다.

도시의 풍치에 어울리게 훌륭히 개건된 공장은 그 어디를 보아도 정갈하며 공원을 련상케 하고있다.

구두 한컬레를 생산해도 그 질을 담보하자, 이것이 오늘 원산구두공장 로동계급모두의 목소리이다.

그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해나가고있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기술자, 일군들은 제품의 질제고가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기사장 서원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가르치신것처럼 구두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여 맵시있고 가벼우면서도 질좋은 구두,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구두를 생산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종업원들모두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학습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매주 3차에 걸쳐 기술학습을 진행하고 과학기술지식보급실도 활발히 운영하고있다.

모르고서는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없다면서 공장에서는 신발생산의 첫 공정인 재단으로부터 제화 등 마지막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생산을 진행하도록 하고있으며 이와 함께 공정검사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풀칠기와 알성형기를 제작하고 중창생산과 파자재의 재생에서 로력과 원가를 줄이면서도 그 질을 더한층 높일수 있게 되였다.

특히 앞선 기술을 받아들인 알성형기창안제작으로 많은 자재와 원료를 절약하여 국가에 적지 않은 리익을 주었다.

그뿐만아니다. 구두를 더욱 경량화하기 위하여 사출작업반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구두창의 새로운 재료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사출기의 성능도 더한층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기술집단의 력량도 강화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종업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경쟁에도 당당히 나설수 있는 맵시있고 질좋은 구두의 생산량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덕을 보는 축산기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시비년도 주체비료생산을 위한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발생로직장, 성형직장, 뇨소직장 등 기업소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주체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협동벌들에 보내주려는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와 기세를 엿볼수 있다. 출하장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주체비료가 차들에 실리우고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하여 종업원들은 원자재보장, 기술혁신, 설비갱신 등 여러가지 요인도 있지만 기업소의 축산기지가 큰 은을 내고있기때문이라고 말하고있다.

실지 기업소의 축산기지는 규모가 크고 째인 목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축산물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배합먹이직장의 축산작업반에는 매 집짐승들의 생산목적과 성장단계별에 따르는 여러 호동과 알깨우기실, 고려약제조실 등이 있다.

여러 층으로 되고 외장재까지 칠한 집짐승호동들은 마치도 아담한 살림집같았다.

특색있게 건설된 호동들마다에는 살진 돼지, 오리, 게사니, 닭 등 집짐승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있다.

먹이를 배불리 먹고 누워서 잠자는 비육돼지들이며 먹은 량이 적은지 더 달라고 조르며 온 호동이 떠나갈듯 소리를 지르는 종축돼지들…

그런가 하면 야외호동들에 펼쳐진 오리, 게사니무리 역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직장에서는 집짐승들에 따르는 먹이단위를 옳게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돼지와 오리비육호동의 사양공들은 새끼낳이와 알낳이에 따르는 먹이와 물주기, 온습도보장 등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먹이기준표대로 배합먹이와 대용먹이를 책임적으로 주면서 돼지, 오리사양관리를 잘해나가고있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 오리 한마리당 무게는 40일동안에 2. 5kg, 돼지는 6개월동안에 80kg을 넘고있다.

분쇄, 미생물배양, 알먹이생산공정 등 현대적으로 꾸려진 흐름식먹이생산공정에서는 집짐승들에 해당한 먹이들이 생산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집짐승먹이를 연구개발하여 먹이소비기준에서 알곡비중을 대폭 낮추는것과 함께 물에서 자라는 먹이풀을 재배하여 먹이문제도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알깨우기실의 생산자들은 현대화된 인공부화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며 병아리생산에서 75%의 실수률을 보장하고있다.

알깨우기공 김복희는 말하였다.

《지금 발육실안에는 수천알이나 되는 오리알, 닭알 등이 있습니다. 이제 까나오면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게 될것입니다. 그 덕을 종업원들이 보게 되니 아무리 일해도 기쁘기만 합니다.》

직장에서는 약초를 가지고 수의약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 고려약제조실에서는 찔광이, 삼지구엽초, 삽주를 비롯한 약초들로 집짐승들이 설사를 비롯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약을 만들어 먹이에 첨가하여 먹이고있다.

뿐만아니라 청천강기슭에서 소, 양, 염소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은 축산을 잘하여 후방사업에서 소문을 내고있는 기업소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

기업소에서는 생산된 고기와 알을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영양제식당을 비롯한 구내식당들에서도 축산기지에 토대하여 운영을 잘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좋은 평을 받고있다.

기업소의 일군인 강응학은 말하였다.

《지금 기업소에서는 고기와 알생산량을 지난해보다 두배로 늘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돼지우리확장공사와 공동축산과 단위별 분산축산, 나노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배관공사, 배합먹이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축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후방공급사업을 생산을 추동하고 고무하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여기에 기업소에서 찾은 생산정상화의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붉은 넥타이에 실린 꿈

모란봉구역 인흥초급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있다.

세상을 놀래우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거나 아름다운 선률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곡가가 되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일떠세우는 설계가가 되겠다는 등 학생들은 제나름의 꿈이 실현될 앞날을 그려보군 한다.

그들은 모두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다. 앞날의 조국의 모습이 자기들의 성적증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는것이 그들이 지닌 마음이다.

과학자가 될 포부를 안고

2학년 7반의 최금성학생은 수학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고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력이 빠른 그는 하나를 배워주면 둘, 셋을 파악할줄 안다며 수학교원 리정아는 이렇게 말하였다.

《금성학생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기발한 착상으로 누구보다 먼저 풀어내군 합니다. 언젠가는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자기 식의 독특한 풀이방법으로 답을 찾아 교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가 학과목경연들마다에서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데는 머리가 남달리 좋은데도 있지만 공부를 대하는 태도에 그 비결이 있다. 실지 그는 45분 수업시간이면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여 귀담아듣는다. 무엇이나 꾸준히 파고드는 그의 정열은 언제나 5점만을 새기게 하고있다.

그의 이러한 수학적재능은 유치원시절에 나타났다고 한다. 얼핏 스친 사물현상도 정확히 기억해내고 집짓기, 탑쌓기 등 여러가지 지능놀이와 셈세기를 잘하였지만 그는 관찰력도 류달랐다. 하나의 사물현상도 무심히 스쳐보내지 않는 그의 관찰력은 많은 의문을 낳게 했고 대상에 대한 표현도 엉뚱하게 펼쳐보이군 하였다.

남다른 학구력을 가진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것만으로는 늘 성차하지 않고있다.

그는 말하였다.

최금성

《초급중학교에서 공부하면서부터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래야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는 과학자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리설경

학교의 꾀꼴새

학교예술소조에서 성악을 배우는 리설경학생은 소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그러한 재능이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초급중학교에서 공부하던 어느날 그의 풍부한 음악적감정과 특색있는 소리색갈이 예술소조 지도교원의 눈에 띄우게 되였다. 그의 음악적재능은 그때부터 발전하게 되였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설경에게 공부할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딸애는 노래소리만 들려오면 박자에 맞춰 노래를 따라부르면서 흥에 겨워했고 짬만 있으면 음악을 듣군 하였다. 그러는 그를 부모는 귀엽게만 여겼지 남다른 음악적재능의 싹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현재 3학년 9반에서 공부하는 그는 학교의 꾀꼴새로 불리우고있다. 조선명곡과 세계명곡을 노래양상에 맞게 나무랄데없이 형상하는 능란한 솜씨와 특색있는 소리색갈은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저절로 녹아들게 한다.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과 텔레비죤무대에 여러번 출연하는 과정에 그는 가수가 될 꿈을 지니게 되였다. 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다.

미래의 축구명수

2학년 13반에서 공부하는 안명성학생은 세계적인 축구명수가 되여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리는것이 목표이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의 소원이기도 하다.

원래 그에게는 꿈이 많았다. 인민군대, 력사학자, 교원…

그러나 텔레비죤에서 우리나라 녀자축구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하는것을 보고 자기의 목표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륙상선수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축구애호가인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운동장에서 동무들과 훈련경기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공다루는 기술이 눈에 띄운다. 공을 몰고가면서 상대편선수들을 빼돌리고 꼴을 넣기까지의 련결동작은 전문축구선수들 못지 않다.

안명성

모란봉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지 2년밖에 안되지만 그의 공다루기기술의 발전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축구가 집체운동이기때문에 한두명의 개인기술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며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칠 때 승리는 확정적입니다.》라고 말하고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이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축구기술뿐아니라 마음도 커가고있다.

과외시간은 그가 즐겨 기다리는 축구훈련시간이다. 그가 세운 훈련계획은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다. 기초기술훈련, 육체훈련 등으로 육체적부담은 크지만 그는 다른 학과목의 학습과제를 꼭꼭 수행하는것도 생활화하고있다. 그는 자기의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이런 꿈은 그들만이 간직한것이 아니였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렇듯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배우고있으며 앞날의 주인공들로 준비해나가고있다.

붉은 넥타이에 실린 그들의 꿈, 아직은 작은 싹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재능의 싹을 마음껏 키워주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따뜻한 해빛과 비옥한 토양에서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유모아

리발사의 식별수준

리발사: 아이구, 당신의 머리는 왜 이렇게 보기 싫게 깎았습니까? 제가 잘 깎아드리지요.

손님: 그래요?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요. 한눈에 좋고 나쁜것을 가려내니!

리발사: 머리를 전문 깎는 사람이 그것도 볼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자, 어서 오시우.

손님: 아니요. 감사하지만 전번에 내 머리를 깎아준건 당신인걸요!

* * *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조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책을 더 잘 꽃피워가기 위해 최근시기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새로 발족되여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협회는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하고있는 옥류아동병원에 본부를 두고있다.

우리와 만난 협회서기장 한희숙은 말하였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나오게 된 경위는 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들의 근본권리를 옹호하며 건강, 영양, 지능발육, 생활관련봉사를 개선하여 그들을 앞날의 강성국가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사업을 방조하는것을 협회의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하였다.

조선어린이후원협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중시하고 국가적관심을 돌리는 공화국의 현실을 널리 선전하며 협회의 존재와 목적, 활동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나라 정부기관들과 비정부단체들,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고있다.

협회는 특히 자기의 사명에 맞게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는 사업을 적극 후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도 전개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선전물과 어린이들의 생활개선에 대한 통보와 정보봉사, 각지의 애육원, 육아원에 대한 단계별 후원계획, 소아과 의사들을 위한 강습과 강연, 시급히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들에 대한 료해를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얼마전 평안남도, 함경북도의 육아원 등 여러곳에 나가 사업하였다는 협회일군인 리은하는 《어린이들의 영양상태와 위생상태를 료해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어린이들속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영양식품을 생산하는 식료공장들에 나가 그 생산정형을 알아보고 필요한 방조도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협회에서는 어머니들이 집중되여있는 일터들에 아동진료소를 내오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여러곳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며 치료와 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그 단위들을 꼽는다면 대표적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들수 있다.

협회는 성원총회, 집행리사회, 재정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대상계획부, 선전부, 대외사업부, 현지사무소들과 아동진료소, 이동진료소, 정보보급소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있다.

협회회장 김형훈은 말하였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병없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야 조국과 민족의 밝은 래일이 있는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명심하고 어린이후원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사 화

《시를 부를줄만 압니다》

김삿갓(본명 김병연, 1807년-1863년)이 금강산에 갔을 때 있은 일이다.

그가 내금강의 만폭동으로 가느라고 허줄한 행색을 하고 표훈사쪽을 지나고있었는데 나무그늘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벅적고아대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량반들이 둘러앉아 한창 글짓기내기를 하고있었다. 삿갓은 호기심이 동하여 가만히 그곁에 앉아 들어보았다. 그런데 금강산을 노래한다는 그들의 시는 모두 허황한 빈소리뿐이였고 앞뒤가 맞지 않아 하나도 마음에 드는것이 없었다.

삿갓은 듣다 못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그들앞에 나서서 한수 읊었다.

나는 청산이 좋아 들어가는데
록수야 너는 어이하여
나오느냐

삿갓이 이렇게 한수 읊고 떠나려니 량반들이 그를 불러세웠다. 난데없이 나타난 손님이 행색은 허줄하였으나 그가 읊은 시가 보통이 아니였던것이다.

《당신도 시를 즐겨하는것 같은데 우리와 같이 시짓기내기를 하지 않겠소?》

한 량반이 김삿갓을 붙잡으며 말하였다.

《저는 시를 지을줄은 모르지만 부를줄은 압니다.》

《시를 부를줄만 안다? 그것 참 흥미있는 말일세. 그럼 불러라도 보게나.》

《량반님들의 소원이라면 거저 지날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 시를 부를테니 써보시구려.》

삿갓이 량반들속에 들어앉으며 이렇게 말하니 곁에 있던 량반이 붓을 들고 삿갓을 바라보았다.

《자, 어서 부르게나.》

《예.》

그리고나서 김삿갓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소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는가요?》 하고 물었다.

《있지.》

《그 두자를 나란히 쓰시우.》

《자, 두자를 썼네.》

삿갓은 다시 잣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는가고 물었다. 량반이 있다고 대답하자 삿갓은 그 두자를 옆에다 나란히 쓰라고 하였다. 이어 삿갓은 바위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으면 두자를 더 쓰라 하고 그옆에 돌아간다는 글자를 한자 덧붙이라고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삿갓은 줄을 바꾸어서 산과 물을 가리키는 글자, 이곳저곳을 가리키는 글자를 각각 두자씩 나란히 쓰게 하고는 나중에 기이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가 있으면 하나 더 붙여놓으라고 하였다.

다 받아쓰고난 량반은 골을 내며 비난하였다.

《여보, 내가 시를 부르라고 했지 언제 이런것들을 부르라고 했소?》

김삿갓은 그 량반을 보고 빙긋이 웃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시를 부를줄만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자로 시를 짓는 량반들이 적어놓은 시도 모르겠다니 낸들 어찌겠소. 그러면 제가 량반님들과 시겨루기에 대상이 못되는것 같으니 물러가겠소이다.》

삿갓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삿갓의 도고한 태도에 의아해진 량반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머리를 맞대고 그가 부른 시를 다시 읽어보았다.

송송백백암암회
산산수수처처기

《아하, 이야말로 명시로다.》

소나무 잣나무 바위들이
뒤섞인 사이를 돌아드니
산은 산마다 물은 물마다
곳곳이 기이한것뿐이구나

시의 뜻을 새기며 감탄하던 량반들은 그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멀어져가는 김삿갓을 다시 부르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 * *

재능의 꽃망울들

《함께 악보를 읽어보자요.》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은 재능있는 음악신동들을 많이 키워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소문이 났다.

이 유치원에서 조기음악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음악예술인재들로 자라나 오늘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에서 활약하고있다.

유치원에서는 재능의 싹을 제때에 찾아내여 어린이들을 악기, 노래 등을 잘하는 재간둥이들로 키워내고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원장 김형애는 말하였다.

《음악적소질은 어린시절부터 나타납니다. 때문에 그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일찍부터 키워주어야 음악적재능이 더욱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청음시창실이였다. 여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에 대한 기초교육을 주고있었다. 3화음은 물론 7, 9화음도 정확히 찾아내고 피아노의 선률에 맞춰 박자를 치며 시창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무척 귀엽성스러웠다.

그들속에는 노래집 《원수님 그 품속에 우리 자라요》를 창작한 오윤정어린이도 있었다.

교양원 리혜영은 윤정이는 천성적으로 음감이 정확하고 기억력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제인가는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본 자기의 감정을 바이올린에 담기도 하였고 또 언제인가는 빠른 노래를 지으려면 몇분의 몇박자로 지어야 하는가를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 그의 재능은 몰라보게 자랐으며 새 가사가 있으면 양상에 맞게 곡을 손색없이 짓군 하였다. 이렇게 되여 교양원이 작사를 하고 윤정이가 작곡을 한 노래집 《원수님 그 품속에 우리 자라요》가 창작되게 되였다. 노래집에는 그가 작사, 작곡을 한 《언제면 그날이 올가》도 있다.

그러한 재능은 리연, 정수경어린이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두 어린이의 공통점은 음악을 하루종일 감상해도 지루해하지 않는 남다른 취미와 소질이 있는것이다.

연이는 한번 피아노앞에 앉으면 3시간동안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곡이라도 형상의 묘리를 간파하고 자기의것으로 습득하는 능력이 다른 어린이들보다 뛰여나다고 한다. 박력있으면서도 격조높게 하는가 하면 서정적으로 잔물결이 일듯 형상하는 그의 연주는 6살나이의 어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나이에 비해 집중력과 인내력이 좋은 수경이는 무엇이나 진지하게 파고드는 성격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바이올린을 배운지 1년만에 《어린이 바이올린 배우기》(유치원용)를 습득하고 한단계 높은 수준의 교재를 배우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 련습곡은 물론 외국련습곡도 능란하게 연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수경이와 연이는 지난 3월 텔레비죤무대에 출연하여 자기의 재능을 펼쳐보이였다.

그들만이 아니다. 가야금과 바이올린, 피아노 등 유치원의 그 어느 련습실에 들려보아도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가는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볼수 있다.

성격과 다루는 악기는 서로 달라도 하나와 같이 큰 포부와 희망을 안고있는 오윤정, 리연, 정수경어린이들, 그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4월부터 평양음악학원 학생이 되였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꼬마작곡가 오윤정

정수경

《우리 행복 노래불러요.》

리 연

가야금수업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9)

- 강원도지구 -

울림폭포

이번호에는 아름다운 조선동해기슭에 있는 항구문화도시이며 관광도시인 원산시를 끼고있는 강원도지구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관광지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울림폭포와 마식령스키장, 명사십리, 시중호를 비롯한 이름난 명승지들입니다.

평양-원산관광도로(199km)를 따라 원산으로 가는 길에 신평휴게소가 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강원도지구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하게 일떠선 종합적인 스키체육관광시설인 마식령스키장이 있습니다.

주체102(2013)년 12월 31일에 개장된 마식령스키장은 스키주로의 수(10개)와 총 연장길이(110 000m)에 있어서 세계적이며 스키주로의 너비는 40~120m, 주로정점의 높이는 1 363m입니다.

스키장에는 스키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마음껏 스키체육을 즐길수 있는 초급, 중급, 고급스키주로가 있으며 이밖에도 야외스케트장과 눈놀이장, 어린이스케트장, 썰매주로들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스키장에는 산골맞이 나게 특색있게 꾸려진 현대적인 마식령호텔과 다양한 스키봉사 및 숙소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습니다.

원산시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법동군과 천내군의 경계에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폭포소리가 수십리밖에까지 울린다고 하는 울림폭포가 있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75m이며 폭포아래에는 소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차집, 전망대, 정각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있습니다.

송도원은 원산시내에서 북서방향으로 3km 떨어진 바다가에 있는 명승지입니다.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과 기슭에 펼쳐진 백사장, 우거진 소나무숲과 해당화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한폭의 그림을 련상케 하는 송도원(면적 500여정보)은 하나의 큰 유원지로 꾸려져있습니다.

동해명승 송도원에 자리잡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어린이들이 즐거운 야영생활을 할수 있게 꾸려진 국제야영소입니다.

야영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주체103(2014)년 5월에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였습니다.

야영소에는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침실들과 식당, 편의시설들이 있는 야영각들이 있으며 극장과 등산지식보급실, 전자오락실, 도서실, 국제친선전람실, 소년단실, 미술실, 솜씨전람실, 립체률동영화관 등이 있는 훌륭한 국제친선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이 현대적으로 꾸려져있어 야영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명사십리는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의 남동쪽 바다기슭에 있는 명승지입니다.

원산만으로 뻗어나간 갈마반도의 모래뚝이 명사십리입니다. 길이가 십리(4km)나 되는 이름난 모래밭이라 하여 명사십리로 부르는데 남대천(안변)어구에서 부터는 7km정도 됩니다. 모래밭의 너비는 좁은 곳이 0. 7km, 넓은 곳이 1. 3km정도입니다. 이 모래밭은 매우 훌륭한 해수욕장으로 되고있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기슭을 따라 흰모래밭에 붉게 핀 해당화와 푸른 소나무, 사철 출렁이는 조선동해의 물결, 이 모든것이 한데 어울리는 명사십리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중호는 원산-금강산로상의 바다가에 있는 호수로서 원래 조선동해기슭의 작은 만이였던것이 모래로 막혀 이루어진 면적이 2. 94㎢, 둘레가 11. 8km인 아름다운 바다자리호수입니다.

호수에는 7개의 섬이 있고 특히 바닥에는 4~5m 두께의 질좋은 치료용감탕이 깔려있으며 감탕에는 류화철, 칼시움이온, 마그네시움이온 등이 섞여있어 신경계통과 염증성질환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감탕치료료양소들과 휴양소들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시중호는 한쪽에 아름다운 조선동해의 훌륭한 백사장이 펼쳐져있어 해수욕을 하기에도 아주 리상적인 곳입니다.

안변군에 있는 천삼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석왕사의 가을

마식령스키장

명사십리해수욕장

고장입니다.

감고장으로 유명한 농장의 모든 산과 언덕, 도로주변, 살림집들마다에는 감나무가 설레이고있는데 해마다 10월이면 농장의 모든 마을들이 아름다운 감빛으로 물듭니다. 이 농장과 안변군에서 나는 감은 그 맛이 하도 좋고 특이하여 조선의 특산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석왕사는 고려말-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찰입니다. 고려말인 1386년에 처음으로 세워진 석왕사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신평금강명승지는 조선의 중부지대에 뻗어내린 아호비령산줄기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신평금강명승지에는 옥류대골, 옥류동, 남강총석정, 단풍골, 금강폭포골, 도화동굴, 노은포골을 비롯하여 70여개의 명소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서로 다른 독특한 자연경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송도원려관은 원산시의 해안광장앞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습니다.

11층으로 되여있는 건물로서 수용능력은 400명입니다. 려관에는 연회장과 면담실, 영화관, 탁구장 등이 있으며 메밀국수와 돌불고기, 해산물료리가 유명합니다.

그럼 원산지구에 대한 소개를 이만하겠습니다. 원산지구는 앞으로 세계적수준으로 더 잘 꾸려지게 될것이며 새로운 항로들과 해상로들도 개설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줄것입니다.

다음호를 기다려주십시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남조선에서 창작된 시 《세포등판》을 되새기며

3년전 조국의 세포지구에서 개간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내외의 여론이 분분하였다. 그가운데 지난해 남조선에서 시 《세포등판》이 발표되여 세포지구를 그려보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부풀게 하였다. 시는 남조선시인 권말선이 창작하였다.

그는 첫 구절을 이렇게 뗐다.

바람포 비포 눈포 합쳐서
세포라 부른다지
드넓은 황무지 옥토로 일구기 위해
오랜 세월 꿈을 키우며 바쳐온 날들

시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세포등판에서는 바람이 불고 비나 눈이 내리면 그 량과 세기가 여간 크지 않다. 2년전 7월 한달동안에 그 전해 한해 강수량과 맞먹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러한 곳에 조국에서는 축산기지를 일떠세울것을 결정하였다. 그것도 강원도 세포군, 이천군, 평강군일대의 넓은 부지에 축산학연구소와 축산물가공기지까지 갖춘 대규모축산기지이다.

그 규모에 대해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동양최대목장이 대관령 삼양목장(남조선)이다. 그보다 무려 25배나 크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뉴질랜드의 Mt. Pember Station에 비해서는 2배가 크다. 세계최대의 축산기지인셈이다. … 서울시와 맞먹는 넓이이다.》

시인 권말선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끝간데 없는 들판우에
드센 바람 막을 방풍림 둘러치고
푸른 풀잎 비단처럼 깔아
온갖 가축 풀어먹이자면
날포 발포 땀포 얼마나 쏟아부었으랴

참으로 많은 품이 들었다. 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에 땀방울이 그대로 얼음버캐가 되는 속에서 보습날마저 부러져나가는 언땅을 함마와 정대로 한점두점 뜯어냈다. 그렇게 갈아엎은 땅이 산성화되였다는 토양분석표를 보고서도 물러섬이 없이 다섯번, 여섯번씩이나 다시 갈아엎었고 소석회며 부식토를 내여 땅의 성분을 개량하였다. 이와 함께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방풍림을 조성하고 하천마다에 옹벽을 쌓았으며 손끝에 피가 지도록 풀뿌리와 나무뿌리, 돌들을 걸어내고 세벌, 네벌김을 매여 오랜 세월 억새만이 무성하던 땅의 구석구석까지 옥토로 만들었다. 1년도 못되는 사이에 5만여정보의 묵은 땅을 말끔히 정리하였다.

그 과정은 순수 자연개조만이 아니였다. 세포등판은 나라가 해방되기 전 군마들을 길러내던 일제의 군화발이 찍혀져있는 곳이고 1950년대 미제의 침략의 잔해가 남아있는 곳이며 오늘은 반공화국 핵전쟁침략책동에 광분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 대치한 최전방 오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건설자들의 하루하루는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신념의 정화과정이기도 하였다. 실지 건설자들은 3만여발에 달하는 전쟁시기의 폭발물들을 걷어내고 거기에 자기들의 꿈을 담은 씨앗을 뿌리였다.

시에서 《풀빛바다 세포등판》이라고 표현된것처럼 지금 눈뿌리 아득한 세포등판에서는 자주꽃자리풀, 오리새와 같은 먹이풀들이 무릎을 치며 설레이고있고 그를 가로세로 질러 방목도로를 비롯한 천수백km의 도로가 뻗어있다. 그 길을 따라 소, 양, 염소떼가 오가고있으며 도처에 자연풍치와 어울리는 살림집, 축사, 공공건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방목지에 개척자들의 보람과 긍지 넘친다.

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이 전변의 비결을 두고 다음과 같이 구가하였다.

누구의 뜻, 사랑, 숨결은 고고히 흘러흘러
그토록 풍성한 대지 가꿔낼 힘 되였던가

바로 그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3년전 9월 세포등판개간의 용단을 내리시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전반사업을 지도하시며 건설자들의 정서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피고계신다. 올해에는 신년사에서 세포지구개간사업에 대해 강조하신데 이어 불후의 고전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였다.

그이의 결심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과 이어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전쟁시기에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세포바람을 부러운 바람으로 되게 하자고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위인들의 이렇듯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오늘날 세포지구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 세인의 이목을 끌고있다.

시인 권말선은 머지 않아 완공될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그려보며 《꿈도 미래도 웃음도 파도처럼 넘실대라 … 그리운 들판이여!》라고 시를 끝맺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쌍둥이자매의 꿈

얼마전 우리는 지난 1월 제15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와 2015년 홍콩마라손경기대회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 김혜경선수를 만나기 위하여 청춘거리를 찾았다.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우리의 눈앞에 줄지어 늘어선 각종 종목의 체육경기관들과 멀리로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대동강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김혜경, 나이는 22살, 평양체육단 마라손선수, 인생의 초엽이라고 할수 있는 어린 처녀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경기들에서 그것도 단번에 2개의 금메달을 따냈다는것이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평양체육단 마라손감독인 정명철의 안내를 받으며 훈련장에 들어서니 꼭같이 생긴 두 처녀가 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고있었다.

의아해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정명철감독이 웃음을 머금고 《김혜경선수는 쌍둥이자매의 동생입니다. 자매가 다 마라손선수인데 지금 훈련중입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들의 훈련을 방해하고싶지 않아 감독의 방으로 향하였다. 김혜경선수가 어떻게 되여 마라손을 시작하게 되였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서두를 떼였다.

김혜경

김혜경선수의 고향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도림리이다. 어린시절 그들이 체육인이였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청소년체육학교에 들어간것이 마라손선수로 자라게 된 첫 동기였다.

원래 김혜경은 손풍금을 배우려고 학교음악소조에 찾아갔었다. 그러나 체육수업시간에 달리기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던 체육교원이 혜경이의 아버지에게 딸들을 체육인으로 키울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어린시절부터 돈 한푼 받지 않고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에 맞게 키워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에 의해 쌍둥이자매는 한날한시에 청소년체육학교에 입학하게 되였다. 그때가 그들이 14살나던 해였다.

그로부터 6개월후인 주체96(2007)년에 진행된 전승컵경기대회 3 000m달리기경기에서 언니인 김혜성이 1등을 한것이 계기로 되여 그들의 전문체육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였으며 얼마후부터 쌍둥이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다.

수많은 국제국내경기들에서 그들은 언제나 1, 2등을 다투었다. 주체103(2014)년 4월 국제륙상련맹 제27차 만경대상마라손경기대회에서 혜경은 1등을, 언니인 혜성은 2등을 하였고 주체102(2013)년 싱가포르녀자달리기대회 반마라손경기에서도 동생은 1등, 언니는 2등을 하였다.

감독의 말에 의하면 지구성과 인내력이 강한 혜경선수의 성적이 항상 언니인 혜성선수보다 높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기뿐아니라 훈련에서도 서로 승벽심이 강하고 요구성도 높다는것이였다.

우리가 감독의 말을 듣고있는데 김혜경과 김혜성이 훈련을 마치고 휴게실에 들어섰다.

그들을 만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선 우리는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걸음을 멈추었다.

《언니, 오늘 훈련에서는 내가 졌어. 역시 언니는 속도가 좋아. 난 언제면 언니의 그 속도를 따라갈가.》

《애애, 그런 소리 말아. 넌 항상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나보다 앞장에서 들어서거든. 요 이악쟁이!》

우리와 마주선 쌍둥이자매는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는 아직 자랑할만 한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훈련을 열심히 하여 더 좋은 경기성과를 이룩하겠다고만 하는것이였다.

《지금 마라손의 세계적인 추세는 더욱 속도화되고있는것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 높은 육체적준비와 강한 인내력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서야 할 승리의 봉우리는 높고 또 올라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전세대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겠습니다. 당면하게는 래년에 진행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조국을 세상에 빛내이는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김혜경선수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취재수첩을 덮었다. 그의 이 말속에 우리가 알고싶은것이 다 들어있었기때문이였다.

《앞으로 더 좋은 경기성과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는 그들과 헤여졌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언니와 함께

상 식

10간과 12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나라들에서 년, 월, 일, 시간과 방향 등을 표시하는데 10개의 《간》(천간)과 12개의 《지》(지지)를 썼는데 이것을 《간지》(또는 6갑)라 하였다.

10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이다.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이다.

10간과 12지를 차례로 맞추어나가면 60개의 서로 다른 맞춤을 얻는데 이 60개의 맞춤을 60갑자(6갑)라고 한다.

간지로 셈을 세면 61번째만에 같은 맞춤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한다.

중세기와 근대에 력사적년대를 쓸때에는 간지도 함께 쓰는것이 보통이였다. 실례로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가 선 해(918년)는 《영락1년 태조 무인》, 우리 민족의 고유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1443년 음력)는 《세종 25년 계해》라고 하였다.

옛날의 력사적사실들도 흔히 간지에 의하여 불리여오고있는데 대표적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임진(1592년)조국전쟁, 임오(1882년)군인폭동…

12지는 시간을 표시하는데도 쓰이였다.

낮 12시를 《정오》라고 하며 밤 12시는 《자정》이라고 한다. 근세에 와서 《정오》전을 《오전》, 《정오》후를 《오후》라고 하게 되였다.

12지는 방향을 표시하는데도 쓰이였다. 오늘 쓰는 자오(북-남)선, 묘유(동-서)선도 12지에서 나온것이다.

이와 같이 간지는 지난날 사회문화생활에서 널리 쓰이였다.

상 식

늙어서도 건강에 좋은 운동

운동을 하여 덕을 보는 몸의 능력은 나이가 들어서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대체로 사람은 40살부터 매해 육체적능력을 약 1%씩 잃으며 60대 중간기에 들어서면 자기의 육체적능력의 약 1/3을 잃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운동이 그 상실의 절반을 줄일수 있다.

나이든 사람이 일을 할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리유의 하나는 근육의 힘이 약간씩 적어진 결과 산소운반능력을 잃는데 있다.

운동을 하면 뼈성분이 줄지 않고 쉽게 골절되지 않으며 관절이 유연해진다. 한주일에 3번은 걷기운동을 하거나 천천히 달리기운동을 하며 3번은 보건체조를 하는것이 좋다. 일부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달리기를 건강에 필요한것으로 느끼지 못하기때문이다.

《산보는 지혜를 낳는다》는 격언이 있다. 하루종일 방안에서 책상에 마주앉아 일한 사람들에게는 경치가 아름답고 공기가 신선한 야외에 나가 약 15분가량 걸으면서 심호흡을 하는것이 하나의 적극적인 휴식으로 된다.

긴장했던 대뇌는 늦추어지고 흐리멍텅한 사유를 밝게 해주며 상상력을 틔워줌으로써 정신로동의 효률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걷기운동을 통한 산보로 뇌수의 로화를 막을수 있다. 봄, 여름, 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숨쉬기가 가쁘지 않을 정도로 걷는것이 적합한 걷기의 기준이다. 대체로 분당 150~160보 걷는다.

약동하는 고장을 찾아서

얼마전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황해남도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재령군에서 한 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미국에서 살고있는 신언순동포가 수십년동안 소식을 모르던 아들을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는데 그가 재령군 북지리에서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동포의 아들이 살고있다는 북지리로 향하였다. 차를 타고 30여리를 달리니 리의 전경이 안겨왔다. 리입구로부터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도로량옆에 서있는 가로수와 그 사이사이의 가로등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는것만 같았다.

우리와 만난 리의 일군인 리승호는 말하였다.

《현재 우리 북지리는 전국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꾸리기도 잘한 단위들중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고장사람들은 최근시기 그전에 비해 농사를 더 잘하면서도 살림집과 병원, 상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새롭게 일떠세웠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에서나 성과의 여부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듯이 자기 고장이 전국적으로 손꼽히게 된데는 뜨거운 애국심과 인정미를 지니고 불같이 산 리의 일군이였던 오광철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신언순동포가 북지리에 왔을 때에도 그가 친혈육의 정을 다해주었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포의 아들 신천식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의 취지를 듣고난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아버지를 만났던 때에 있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실 그때 세상에 없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와의 뜻밖의 상봉이여서 처음엔 놀라왔습니다. 하지만 상봉과정에 아버지가 비록 이국땅에서 사시지만 애국사업과 통일성업에 헌신하고 계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담아 다시금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고 생일상도 차려주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눈굽을 적시면서 다같이 나라를 위해,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당부를 지켜 일을 하느라 했지만 나라의 은덕에 비해볼 때 너무나 적은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가정은 몇해전에 새집에 이사하였고 지난해에는 분배도 많이 탔다고 한다. 그의 둘째아들 신인철은 청년분조장으로서 일을 잘하여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우리는 이어 황명식가정도 찾았다. 황명식은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에 귀국하였다고 한다. 그는 분조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왔지만 지금도 분조일을 도와주고있는데 일할수록 성수가 나고 일할 재미가 난다고 하였다. 지난해에 딸과 사위가 많은 분배를 탔는데 그 분배를 건사하기가 어렵다고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우리와 만난 1작업반 반장 윤룡섭은 예로부터 재령 하면 쌀고장, 나무리벌 하면 쌀이 남아돌아가는 곳으로 불리워왔다고 하면서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나무리벌에 위치한 이 고장이 논벼농사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온 농장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하였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이고 자체로 후민산비료생산기지와 소석회생산기지를 꾸리였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랑은 아니지만 지난해 우리 작업반이 정보당수확고에 있어서 농장적으로 제일 앞서 분배도 제일 많이 차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농사도 본때있게 잘 지을뿐아니라 작업반원들과 힘을 합쳐 살림집과 축산기지, 온실, 버섯생산기지를 보다 훌륭히 꾸릴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제 힘을 믿고 제손으로 농사도 잘 짓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보다 문명하게 꾸려가려는 그들의 래일을 그려보며 약동하는 고장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리명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기계화작업반

리상점에서

로라스케트장에서

온실에서의 남새생산

상 식

섭정, 수렴청정

임금이 어리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그를 대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섭정이라고 한다. 주로 임금이 어릴 때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 등이 섭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왕의 어머니, 할머니 등 섭정하는 녀자앞에 신하들이 볼수 없게 발을 드리우고 그뒤에 앉아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정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렴청정(드리울 수, 발 렴, 들을 청, 정사 정)이라고 하였다.

삼국시기 고구려의 태조대왕(53년-146년)이 7살에 임금이 되였으므로 왕태후(왕의 어머니)가 수렴청정하였다는것이 력사기록에 보이는 첫 수렴청정이다. 그후 력대 봉건국가들에서 수렴청정한 일이 있었다.

남자가 섭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섭정한 대표적인물은 제26대 왕인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리하응)이다. 1863년에 철종이 죽었는데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칠촌조카인 리명복이 왕(고종)으로 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였으므로 칠촌큰어머니인 조씨(신정왕후 제24대 왕 헌종의 어머니)가 약 2년간 수렴청정하였다.

그후 명목상으로는 고종이 직접 정사를 보게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 리하응이 나라의 정사를 좌우하였다. 대원군의 섭정은 1873년까지 계속되였다.

* * *

교단은 높지 않아도

스승은 언제나 제자들의 맑은 눈동자에 자기의 모습을 비쳐본다.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부교수인 정장수는 교단에 설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맑고 꾸밈없는 미소로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교육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군 한다.

얼마전에도 그랬다.

어느 한 학급에서 청취강의를 할 때였다.

청취강의실에서

정장수

높은 수준의 자료도 어렵지 않게 청취하고 그대로 옮겨놓는 한 학생을 바라보는 정장수의 눈가에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만 하여도 일부 발음에서 고질적인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있었다. 사실 사소한 결함이여서 누구나 스쳐지날수 있었지만 교육자의 량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여 정장수는 그 학생에게 개별강의를 해주었을뿐아니라 학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록음자료들도 품들여 묶어서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강의시간마다 그 학생을 무시로 지명하여 발표력을 키워주었다.

그날도 정장수는 그 학생의 일부 발음들에 주의를 돌리며 청취내용의 소화정도를 검열하였다. 정장수는 자신심에 넘쳐있는 그 학생에게 만족한 어조로 《좋습니다!》라는 한마디 말로 자기의 만족을 표시하였다.

후대교육사업에서 티끌만 한 사심도 없이 량심적으로 자기의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그의 모습은 부피두터운 《조영대사전》, 《현대영조사전》들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1990년대말 나라가 허리띠를 조여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정장수를 비롯한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안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자체의 력량을 가지고 《조영대사전》을 편찬할 목표를 세웠다.

편찬조에 망라된 정장수는 수십만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선말어휘들을 먼저 수록하는 과정에 세상에서 우리 말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를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사전편찬의 나날은 그에게 일본에서 흘러간 소년시절을 자주 돌이켜보게 하였다.

일본의 효고현 아마가사끼시에서 태여난 그는 12살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아버지 정태영은 조선학교에서 우리 말을 배우는 자식들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았다. 총련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의 교과서와 학습장을 펼쳐놓고 그들이 획 하나라도 비뚤게 쓸세라 늘 마음을 썼고 조선말의 매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치군 하였다.

그 시기 장수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꽉 차있었다.

주체62(1973)년 8월 처음 조국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로는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온 겨레가 우러러 따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심으로 매일밤 잠들지 못한 아버지였다.

다음해 6월 정장수의 식솔모두는 귀국의 배길에 올랐다.

조국의 품에 안겨 정장수의 일곱남매는 모두 자기의 희망대로 여러 대학을 졸업하였다.

정장수는 평양외국어대학을 다니였으며 졸업후 모교의 교단에 섰다.

이러한 그였기에 사전의 편찬이 우수한 우리 말을 지키고 빛내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수 있었다.

주체91(2002)년 4월 《조영대사전》이 출판된 후 정장수는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과 교훈을 종합체계화하고 일반화하여 《실용적인 조영사전편찬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론문을 집필, 발표하였다.

이어 그는 《현대영조사전》〔주체94(2005년) 출판〕편찬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그 사전들은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삼홍》과 같은 콤퓨터전자사전들을 만드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원천으로 되고있다.

조국의 래일을 가꾸어가는 길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정장수와 같은 교육자들을 후대들은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며 높이 자랑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교원들과 사전편찬사업을 진행한다.(가운데)

인 상 기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나는 지난 2월 조국에서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였다.

감회도 새로와진다.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온 환희로운 그날이 있어 우리 민족의 오늘이 있는것이다.

2월의 봄은 자연이 가져다준 봄이 아니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안아오신 환희의 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제19차 **김정일**화축전장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자연의 추위속에서도 온갖 정성이 깃든 축전장에 장식되여있는 **김정일**화들을 보면서 장군님을 그리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과 경모의 정을 알수 있었다.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업적은 해가 가고 날이 가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도 이전에 볼수 없었던 변화를 많이 목격하게 되였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등 상상밖의 발전은 나를 놀라게 하였으며 그 모든것은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뭉쳐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간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류명길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 회장 김수해선생 앞

통일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자구

얼마전이였네.

우리 집 달력을 새삼스레 뜯어보느라니 문득 동생생각이 나더구만.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들었네.

난 동생이 몸성히 잘 있으리라고 믿고싶네

여기 조국에서도 모두들 잘 있네.

이제 얼마 있으면 6월이구만.

해마다 6월이면 동생생각이 저절로 들군 하오.

왜 그렇지 않겠소. 6월은 통일의 뜨거운 기운이 온 나라에 더욱더 가득 차넘쳐흐르는 달이 아닌가.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소.

반세기이상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지속되여오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

이 채택된것은 온 겨레가 그처럼 바라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계기로 되였소.

그 나날 동생은 지구의 한끝인 카나다에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을 찾아 여러 통일행사에 참가하군 하였고 지금도 년로한 몸이지만 변함없이 조국의 통일을 위한 길에 서있소.

동생, 올해 내 나이 여든다섯일세. 하지만 난 통일의 날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눈을 감을수 없네.

동생도 잘 알고있다싶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부터 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자기의 존엄을 찾게 되였고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지 않았나.

나라에서는 나를 전쟁로병으로 내세워주고 오늘까지 특별대우를 다 해주고있소. 나는 자식들의 부양과 나라의 보살핌속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있소.

우리 로친은 동생을 한번밖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무척 그리워한다오.

수의사를 하는 맏아들 윤철이와 농장에서 분조장으로 일하는 외딸 윤숙이도 동생의 소식이 텔레비죤이나 신문에 실리면 기뻐들 한다오.

내가 동생을 만나려고 평양에 올라갈적마다 늘 함께 동행하는 둘째아들 윤식이는 지금 수안군농촌경영위원회 부원으로 일하고있소.

윤식이와 윤식이 처는 나와 로친을 정성다해 돌봐주고있소. 며칠전 며느리가 동생을 만나러 갈 때 입었던 내 옷을 손질하다가 동생을 보고싶다고 말하니 손자, 손녀들이 나에게 매달려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조르는것이 아니겠나.

평양고려호텔에서 자넬 만나던 나날을 감회로이 더듬어보느라니 자네를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나서 가슴이 막 찌르르해지더구만. 지금 당장 동생을 만나면 하고싶은 이야기가 쌓고 쌓아도 끝이 없을것만 같소.

어릴적 딩굴며 뛰여놀던 고향마을과 이제는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형제들과 친척, 친우들 이야기 등을…

동생과 나는 비록 동서지간이지만 그리고 지구의 두 끝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살고있지만 통일의 한길에서 제일 가깝고 친근한 동지가 아닌가.

앞으로도 뜻과 마음을 합쳐 통일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자구.

통일을 위해 우리 있는 힘을 다하자구.

그럼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이만 펜을 놓겠네.

동생도 나이가 적지 않은만큼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게.

황해북도 서흥군 가창리 5인민반 남경현 보냄

당당한 조선사람답게

오늘 재일동포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조건에서 조선민족으로서 민족성을 높여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우리는 조선사람

지난해 8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의 주최로 일본대학과 전문학교들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대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였다.

이 행사는 류학동의 모든 본부, 지부들에서 벌리고있는 새 전성기를 개척하기 위한 류학동모범창조운동의 한 고리였다.

《다음》이라는 행사의 명칭에도 류학동활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토론회와 교류모임, 우리 말구연발표모임과 본부단위의 문화공연, 체육경기 등 2박 3일간 다채로운 일정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류학동생활에 뛰여든 후부터 조국과 동포사회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조선민족의 긍지를 되찾게 되였다고 하면서 류학동생활은 참된 민족의식을 새겨주고 세계관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였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전체 행사참가자들이 어깨를 겯고 자기들의 애국의지를 담은 가요 《앞으로》를 힘차게 부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였다. 행사는 동포사회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이에 앞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도 일본중고등학교들에 다니는 동포학생들과의 교류모임을 주최하였다.

조청일군들은 일본학교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여 교류모임에 참가시키려고 남모르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 결과 기따간또, 도호꾸지역과 쥬시고꾸지역에서는 목표로 내걸었던 참가대상자수를 돌파하였다.

모여온 동포학생들은 거의다 초면이였다. 하지만 얼마 안있어 오랜 친구처럼 친숙해졌다. 다니는 학교와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모두가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는 한겨레라는 생각이 마음의 간격을 모르게 했던것이다.

체육경기들과 우등불모임, 토론회와 민속전통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통해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혈통의 뿌리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이하게 되였다.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어지러운 바람이 몰아치는 자본주의이역땅에서 이처럼 사랑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가마밥을 먹고 함께 즐겁게 노래부르고 춤추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가자!》,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등의 힘찬 웨침이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쳐나갈 굳은 결의로 장내는 세차게 달아올랐다.

동포단합의 주요수단으로

동포사회에서 권투는 동포단

합을 위한 주요수단으로도 활용되고있다.

오사까지역에는 이꾸노니시청상회와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권투부 졸업생들에 의해 조직된 《권청회》와 《권인회》라는 권투소조들이 있다. 초급중학생으로부터 60대 로인까지 수십명의 동포들이 여기에 망라되여 권투훈련을 하고있다.

학생시기 권투로 이름을 날리였던 김성화동포는 사회에 나온 후 권투와 멀어졌댔는데 이 소조에 와보고 옛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 권투훈련지도를 스스로 맡아하게 되였다.

재일본조선인권투협회 회장인 총련 이꾸노조선초급학교 교장 량학철동포도 스스로 훈련감독이 되였다.

이런 수준높은 사람들의 꾸준하고 열정적인 훈련지도도 좋지만 그보다 동포들의 마음을 후덥게 하는것은 소조안에 차넘치는 따뜻한 동포애의 정이였다.

일본학교출신의 한 동포는 처음 소조에 들어올 때부터 열렬히 환영해주고 내내 친형제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런 분위기는 우리 동포사회에서만 맛볼수 있다고 하면서 권투훈련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즐거운것은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화목과 단합의 정을 깊이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동포처럼 권투소조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와 련계를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국 이 권투소조들은 동포사회의 단합을 촉진하는 마당으로 되고있다.

자기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민족성을 지키며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 위한 사업은 날을 따라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유선화

어린이들의 왕국

지금 해외동포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감사와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다.

재미동포 김숙은《원아들이 받은 아버지사랑》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교양실과 식사실, 놀이장, 침실, 목욕실 등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실내외가 손색없이 꾸려지고 최신설비들을 갖추고있다. 동화속에서나 볼수 있는 멋진 집에서 원아들이 마음껏 자라고 있다.

새해 첫 현지지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있는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는것으로 시작하신 친근하신 령도자의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 쓰다듬어주시며 그토록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뵈오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진정 북의 어린이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녕안시지부 박상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로동자부부의 가정에 들리시여 그들의 새집들이를 축하하여 술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아들을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고 머리도 쓸어주시면서 그림그리는 방법도 하나하나 배워주시며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실 때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정녕 그이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특이한 분이시다.》

중국에서 살고있는 김영자동포는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 태여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

평양에 있는 옥류아동병원에 한번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이다. 나도 다를바 없다.

지금까지 나는 기업관계로 발전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과 아동병원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에 적지 않게 가보았다.

하지만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종합적인 아동의료봉사기지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환자의 병진단에 쓰이는 렌트겐설비들과 종합수술장에 있는 심페기 그리고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깜찍스런 유희기구들과 오락기재들, 입원실, 치료실들과 나란히 있는 교실들 지어 직승기리착륙장 등은 아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부담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극하며 뜨거운것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참으로 조국은 어린이들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병원을 돌아보면서 나는 입원한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부모는 평범한 근로자들이였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것은 도저히 믿을수가 없는 일이다.

모든것이 동심에 맞게 꾸려져있어 찾아오는 어린 환자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옥류아동병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솟아난 옥류아동병원이야말로 그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낳은 기념비적건축물이다.》

본사기자 유선화

고국으로 가는 길

로씨야련방 싸할린주에는 25년의 력사를 가진 조선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친척찾기협회가 설립되여있다.

나는 올해 48살인데 17년전 이곳 협회성원으로 되였다.

내가 회장으로 일한지는 4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협회의 명칭만 보아도 잘 알수 있듯이 민족성원들의 가슴속에 혈육의 따뜻한 정을 이어주는 협회사업은 참으로 긍지스럽고 보람이 있다.

싸할린주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고국에 살고있는 가족, 친척들을 찾기 위해 우리 협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있다. 자기의 친척들이 조선에 살고있다는것은 알고있지만 그들의 주소나 지어는 이름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지만 혈육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자못 자기의 의무에 충실할 마음을 더욱 다잡군 한다.

2014년은 조선사람들이 로씨야에 이주해온 때로부터 150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이번에 가족, 친척상봉을 위하여 고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양에 왔다.

지난 시기에 나는 우리의 노력으로 고국방문의 길에 세워주었던 상봉자들로부터 고국의 눈부신 현실에 대하여 들은바 있었지만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더 낫다는 말을 다시한번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었다. 그들의 후대들인 우리는 오늘날 존엄높은 고국, 사회주의나라 조선을 찾아가고있다.

우리가 고국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였다.

할아버지세대가 무엇때문에 아름다운 고국산천을 뒤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두만강을 건너왔는가를 우리 세대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그리고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켰을 때 로씨야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이 총을 잡고 전쟁에 참가하여 자기의 뜨거운 피와 살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는가도 잘 알고있다.

로씨야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발휘한 로병들의 영웅적위훈을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고국에서는 공화국영웅 안동수의 위훈을 영원히 전해가고있으며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유가족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훌륭히 살아나가라고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하기에 나는 고국으로 가는 길은 민족을 알고 민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비록 개인의 명예가 빛나거나 치부에 만족을 얻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 조선민족성원들을 애국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나는 언제나 긍지높이 말하군 한다.

로씨야련방 싸할린주 조선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친척찾기협회 회장 박순옥

주체103(2014)년 4월

참관기

반만년민족사에 이루어진 풍속을 더듬어 (1)

- 조선민속박물관을 찾아서 -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호부터 우리는 여러분이 조국에 오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는 조선민속박물관〔주체45(1956)년 2월 10일에 창립〕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선민속박물관은 평양민속공원의 발해궁전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박물관의 강사 리은경은 《주체101(2012)년 9월 조선민속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박물관을 발해궁전에 꾸려놓으니 민속박물관의 특성이 잘 살아난다고, 앞으로 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이 자기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과 미풍량속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그것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라며 우리와 함께 참관자들을 박물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박물관에는 원시로부터 19세기말까지 우리 민족의 로동생활풍습, 옷차림풍습, 가정생활풍습, 민족예술풍습 등에 대한 자료들이 발해궁전과 고구려관청에 나누어져 전시되여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농사, 사냥, 물고기잡이 등 로동생활풍습을 보여주는 호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호실에는 원시사회 초시기부터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선조들이 8 000여년전에 리용하였던 사슴의 뿔로 만든 뿔괭이(남포시 온천군 운하리 궁산유적)와 나무보습, 6 000여년전 유적에서 나온 탄화된 오곡작물과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제36호 집자리에서 나온 벼, 조, 수수, 콩, 기장이 전시되여있습니다.

원시사회의 로동생활풍습

단군부부랍상

그리고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와 고려시기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재배된 많은 품종의 작물들과 농사에 관한 책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재배되던 강냉이와 감자, 고구마, 고추 등에 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호실에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7(1958)년 5월 조선민속박물관을 찾으시여 보아주신 귀가 한쪽에만 있는 외귀호미와 귀가 량쪽에 다 있는 량귀호미 그리고 관개용도구들인 드레박과 용드레, 수차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문익점이 우리 나라에 목화를 펴친 내용, 공예작물재배와 인삼재배풍습, 꿀벌치기풍습, 과일재배와 집짐승기르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과 함께 여러가지 사냥방법과 사냥에 리용되였던 각종 도구 등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속박물관을 찾은 근로자들

옷차림풍습

참관자들이 바다물고기와 강하천물고기잡이풍습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다음으로 들린 호실에는 우리 민족의 옷차림풍습이 전시되여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베, 비단, 무명을 비롯한 천들을 생산하고 조선사람의 체질과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색갈과 형태의 옷들과 치레거리를 만들어 리용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베틀로 천을 짜는 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리 1호무덤벽화자료, 고려시기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11세기 비단길 력사지도자료와 주요 옷감생산지들을 나타내는 조선지도자료관은 참으로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전시대에는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과 그 부인의 랍상도 있는데 그것은 고대 옷차림풍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강대한 나라로 존재하였던 고구려는 문화가 발전하였고 옷차림도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 베, 모직, 비단생산이 늘어나고 새로 모시가 등장하였습니다.

고국원왕릉벽화에 나오는 남자평민의 옷을 보면 남자들은 바지우에 행전을 치고 소매는 좁고 짧았으며 저고리우에 허리띠를 간편하게 매고 수산리무덤벽화에 나오는 녀자귀족옷차림을 보면 녀자들은 저고리에 긴치마(넓은 주름치마)를 입고 코신을 신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구려로부터 백제, 발해, 후기신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는 기간 민족옷은 입기에 편리하게 개조되고 가지수도 다양해졌습니다.

남자의 옷차림이 일반적으로 활동과 로동생활에 편리하게 되여있다면 녀자의 옷차림은 녀성들의 몸매에 어울리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였습니다.

전시대에는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9월에 보아주시고 보내주신 금반지를 비롯한 가락지들과 녀성들이 허리나 옷고름에 차던 여러가지 치레거리며 비녀들과 남자들이 머리에 꽂던 동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옷차림풍습을 통하여 고상하면서도 알뜰하고 깐진 우리 인민의 생활기풍을 다시금 새겨보며 참관길을 이어갔습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가야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 후부여와 함께 1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경까지 락동강하류일대에 존재한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이다.

가야를 다르게 가라, 가락, 아야, 아라라고도 불렀다.

고대국가인 진국의 변한지역에 존재한 여러 가야봉건소국들로 련맹체를 이루고 형성된 가야는 초기에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아라가야, 고녕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로 되여있다가 말기에 이르러서는 대가야(고령가야)가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소가야대신에 비화가야가 존재하였다.

가야는 여러 봉건소국들이 련합하여 이루어진 조건에 맞게 주도세력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매개 가야국들이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치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였다.

국왕은 봉건소국들의 우두머리들을 통제하면서 련맹체를 관할하는 최고통치자였다.

국왕밑에는 나라의 전지역과 인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기구를 편성하고 해당한 관리들을 배속시켰는데 매개 가야국들에도 이러한 권력기구와 관리들이 있었다. 국가형성 초기에 가장 큰 중심세력이였던 금관가야국 국왕의 아래에는 중앙관료들로서 아궁한, 여해한, 피장한, 오상한, 류공한, 류덕한, 신도한, 오능한, 신귀한으로 이루어진 9한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각간 또는 대아간 등의 벼슬을 가진 제1관료층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문제들을 토의하는 평의기구에 참가하여 국왕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였다. 그러나 국왕의 세습권이 확립된 후에는 다만 국왕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국가정치를 집행하였는데 9한이 다스리는 9촌의 호구는 100호에 7만 5000명이나 되였다.

또한 중앙관청에 천부경, 사농경, 종정감과 같은 높은 급의 관리들이 있었다. 여기서 천부경과 사농경은 고려의 호부나 조선봉건왕조의 호조에 해당하는 벼슬이름이며 종정감은 왕실계통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의 관리였다. 그리고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을 맡아보는 관청을 따로 두고 이 관청들이 왕실창고인 내고를 맡아보게 함으로써 중앙통치기구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중앙관청들에 배속된 관리들은 아간(아찬)급의 벼슬을 가진 제2관료층에 속하였다. 이와 함께 제3관료층에 해당하는 관리들을 여러 권력기관에 배속시켜 국왕의 통치를 원활하게 실현하였다.

가야는 중앙통치기구와 함께 지방통치체계도 일정하게 갖추고있었는데 가야련맹체안의 매개 소국들은 독자적인 통치체계를 가지고 자기 지역과 인민들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6가야의 이웃에 있던 변한, 진한계통의 소국들은 점차적으로 가야국들에 통합되였으나 그가운데는 가야의 속국인 제후국으로 남아있으면서 일정한 독자성을 계속 유지한 소국들도 있었다.

가야는 왕권을 유지강화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수도에 많은 병력과 무기고를 두는것과 함께 수백척의 배를 가진 수군을 보유하였으며 법률적통제를 강화하여 통치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봉건적신분질서를 더욱더 유지공고화하였다.

가야는 중앙집권적통치를 지향하면서도 봉건적소국련맹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신라의 끊임없는 침공을 받았지만 그 존속기간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 철

《아리랑》곡조를 타고 흘러드는 생각

…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

이렇게 가요《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한구절을 불러보느라니 우리 민족의 자랑인《아리랑》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지난해 11월말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조선민요《아리랑》이《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조선민요《아리랑》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아리랑〉은 가정과 친우들, 집단뿐아니라 중요계기와 명절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불리워지고있는 대중적민요이다. 〈아리랑〉은 구두로 전해지며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전통형식과 관현악, 현대음악형식으로 존재하고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민족성악강좌 강좌장인 김경옥을 만나 민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경옥은 한때 로씨야, 중국, 일본, 도이췰란드 등 외국사람들속에서뿐아니라 남녘동포들속에서도 인기가 대단한 만수대예술단 민요독창가수였습니다.

그 공연의 나날에 그는《양산도》,《우리 민족 제일일세》,《황금산타령》,《우리 장단이 좋아》,《통일아리랑》등을 맑고 우아한 목소리와 독특한 굴림으로 조선장단에 맞춰 흥취나게 불러 수많은 관중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도이췰란드의 어느 한 극장무대에서 민요를 부를 때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50대의 사람들이 뜻밖에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로씨야와 중국, 일본에 갔을 때에는 공연이 끝나기 바쁘게 수많은 동포들과 그 나라 사람들이 저에게 달려와 조선민요를 배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올랐습니다.》

그러며 이어진 그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민요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 나라 민족음악발전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민요에는《아리랑》뿐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온《양산도》,《룡강기나리》,《물레타령》과 같은 구전민요들도 있고 음악창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조선팔경가》,《금강산타령》을 비롯한 신민요들도 있습니다.

조선민요는 선률이 부드럽고 유순한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맑고 우아하며 은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음악을 즐겨왔으며 선률도 유순하고 아름다운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민요선률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로 되고있는 굴림은 다양한 가창기교로 민족적인 멋을 더욱 돋구어줍니다.

지난날 조선민요는 지역에 따라 크게는 서도민요, 경기민요, 남도민요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리랑》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즐겨부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민요입니다.

민요《아리랑》은 전설이 하도 많아《아리랑백설》(백가지 전설)이라고도 할만큼 유명하였습니다.

조선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와 민족의 넋을 안고 긴긴세월 전해오는 전통적인 민요《아리랑》은 조국의 여러 지역과 지방, 고을과 마을마다 특색을 가진 수많은 변종들을 낳았습니다.

평안도의《서도아리랑》과 황해도의《해주아리랑》, 경기도의《긴아리랑》과 경상도의《영천아리랑》,《밀양아리

랑》 그리고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고성아리랑》, 《삼일포아리랑》과 함경도의 《단천아리랑》, 《무산아리랑》, 《온성아리랑》, 전라도의 《전도아리랑》, 제주도의 《제주아리랑》, 울릉도의 《울릉도아리랑》…

민요 《아리랑》은 시대와 더불어 새롭게 창조되여 오늘날에는 《통일아리랑》, 《군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 등이 태여났습니다.

《아리랑》곡조를 타고 우리의 가슴에 흘러드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날 단순히 사랑과 리별의 노래로 눈물속에 불리워온 민요 《아리랑》이 오늘은 조국의 부흥과 겨레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고 민족의 넋과 숨결을 이어주는 심장의 메아리로 되여 울려퍼지고있습니다.

하기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장들마다에서 울려나온 《아리랑》, 《통일아리랑》은 민족의 력사도 문화도 언어도 하나임을 절절히 느끼게 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통일의 념원을 안고 언제나 우리 함께 부릅시다.

…

온 겨레 손을 잡고 아리랑 아리랑
자주의 새날을 앞당기자 앞당기자
아리랑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통일아리랑

본사기자 연 옥

최악의 단계에 이른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

오늘날 테로와 음모, 정탐과 모략의 원흉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세상사람들은 첫번째로 미국을 지명할것이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미국에 의한 테로와 모략에 의하여 치명적인 후과들이 산생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미국이 벌리는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계속 감행되고있다.

《내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첫째로, 북의 최고지도부와 관련한 중대국가비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남쪽당국의 북에 대한 국가정치테로에 적극 가담한것이다.》

이것은 지난 3월말 기자회견장에서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남조선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가 한 증언이다.

그의 증언은 극도에 달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의 본질과 추악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있다.

김국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한 공화국에 대한 국가정치테로는 한마디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진행되였다.

공화국을 반대하여 지난 세기에 감행된 정탐모략행위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몇년전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빚어낸 《동까모》사건 역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는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의 최종목적이 바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국가정치테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까모》는 파괴암해와 테로 등 공화국에 대한 내부교란음모와 《체제전복》활동을 기본목적으로 미국의 조종밑에 남조선괴뢰들이 2010년에 조작한 범죄적인 테로조직이다.

실지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내부교란과 《체제전복》뿐아니라 최고수뇌부의 외국방문로정에까지 테로음모의 마수를 뻗치고 그 실행에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최신과학기술이 도용된 테로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해마다 미국이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위해서만도 1 000만US$의 자금을 지출한다는것은 미국무성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놓은 자료이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감행된 미국과 괴뢰패당의 유인랍치행위도 반공화국정탐모략의 한 고리이다.

그 대상에는 나이와 성별, 직업에 관계가 없으며 랍치당한 사람들에게 강요한것도 역시 저들의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에 가담하라는것이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괴뢰패당이야말로 주권국가들을 전복하는데 이골이 난 국가정치테로의 원흉,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군사적위협으로써도 경제봉쇄책동으로써도 공화국을 어쩔수 없게 되자 이렇듯 비렬한 음모적방법에 매달리고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인권》모략소동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는 《내가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류포시킨 동영상들중에는 북의 보위부처럼 꾸민 방안에서 〈보위원〉으로 가장한자들이 〈탈북자〉들을 몽둥이로 야만적으로 고문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날조된것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라고 실토하면서 이 동영상은 미국의 소위 《인권》단체들과 《국정원》의 배후조종과 지원밑에 만들어진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집요하게 걸고드는 《북인권문제》의 진속이다.

《위조화폐제조》문제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피장파장이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위조화폐제조》문제를 계속 꺼들여 대외적으로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켜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최춘길은 《나는 북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위조딸라를 얻어보려고 3명의 북주민들과 2명의 화교들에게 과업을 주었으나 얻어오지 못하였다. … 큰 종이에 4장이나 8장으로 인쇄된 위조딸라나 그 원판을 수집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것은 어디에서도 구할수 없어 실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실토하면서 오히려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한자들이 공화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마구 뿌렸다고 하였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하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과 함께 남조선괴뢰패당이 감행하고있는 정탐모략책동은 이제는 도를 넘어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침략과 테로, 략탈과 학살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은 저들의 희생물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괴뢰패당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에 환장하여 반공화국모략책동에 가담하는 인간추물들도 범죄자 김국기와 최춘길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것이다.

《나의 최후의 모습이 당신들의 최후의 모습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하고있는자들이 적지 않은데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짓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변찬우

최춘길

신천땅은 고발한다

900여명의 애국자들을 불태워 학살한 전 신천군당 방공호와 애국자들의 피와 기름이 얼룩져있는 방공호천정, 시체와 함께 나온 옷자락의 일부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창건된지 5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타고앉으려고 무력침공하였다.

1950년 10월 중순경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침략군 우두머리(해리슨)는 강점 첫날에 이런 살인명령을 내렸다.

《…신천에서 살아움직이는 모든것을 재가루속에 파묻으라.》

미군의 군화발이 찍힌 그 시각부터 신천땅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만행이 그칠새없이 감행되였다.

죽은 후에도 누가 누군지 알수 없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 미군은 당시 신천군당청사 2층에 감금하였던 900여명의 인민들의 옷을 모두 벗겨 머리에 씌운 다음 그들을 5~6명씩 결박하여 군당청사의 방공호에 밀어넣었다. 출입문을 봉쇄한 미군은 천정에 있는 공기구멍으로 휘발유를 붓고 인화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시체가 불타서 방공호바닥에 쌓이면 그우에 또 다른 사람들을 몰아넣고 태우고 쌓이면 또 그렇게 태우고…

하여 43. 2㎡밖에 안되는 작은 방공호는 하루동안에 900여명의 시체로 차고넘쳤다.

불에 새까맣게 타고 살점들이 문적문적 떨어져나가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수 없게 된 시체들…

학살현장에서 해리슨은 이 광경이 《기념》이 된다고 하면서 졸개들과 함께 사진까지 찍으며 돌아쳤다.

이렇게 시작된 미군의 살륙만행은 전 신천군내무서 방공호, 서원저수지와 복우저수지, 석당교, 원암리 화약창고를 비롯한 신천군의 곳곳에서 감행되였다.

피비린내나는 미군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았다.

석당교를 차단한 미제침략군과 계급적원쑤들은 오가던 인민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다리우에 세우고는 칼로 목을 자르고 총으로 쏘고 총탁으로 까서 2 000여명이나 강물에 처넣어 학살하였다.

해방후 인민의 기쁨이 실리우던 석당교는 야수들의 인간도살장으로 변하였다. 석당교아래 서강에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 무고한 인민들의 시체가 하얗게 떠서 강을 메웠다. 그속에는 아직 엄마라는 말조차 불러보지 못한 피덩이들도 많았다.

야수들은 전시식량수송에 필요한 가마니생산에 앞장선 녀맹위원장을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그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어 꽁꽁 얼군 다음 쇠줄로 온몸을 결박하여 자동차뒤에 매달아 끌고다니다가 석당교밑으로 끌어낸 후 도끼로 머리를 내리까고 뇌수가 쏟아져나오는 그의 머리에 벼짚을 마구 쑤셔넣으면서 《너는 죽어서도 실컷 가마니나 짜라.》고 뇌까렸다.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것은 너무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강제로 떼내여 화약창고들에 가두어놓고 굶겨죽이고 얼구어죽였을뿐아니라 휘발유를 뿌리고 불뭉치와 수류탄을 던져 무참하게 죽이였다.

미제야수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을뿐아니라 산 사람의 머리에 못을 박아 죽이고 팔과 다리를 잘라 목매달아죽이고 녀성들을 릉욕하고는 못에 처넣어죽였으며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여 칼탕쳤으며 모범로동자라고 하여 사지를 찢어 학살하였다.

백수십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엿보던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신천군에서만도 52일동안에 당시 군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신천땅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런 미국이 주동이 되여 추종세력들과 함께 천만부당한 대조선《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오늘도 신천의 원한품은 령혼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부르짖고있다.

글 본사기자 련 해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전 신천군내무서 방공호뒤전호에서 239구의 시신과 함께 나온 녀성들의 머리태의 일부

서원저수지에서 학살당한 부녀자의 시체

원암리화약창고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은 어린이들의 시체

수 기

나는 신천의 103번째 어린이였다

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우리 고향 신천땅을 강점하였던 미제야수들의 학살만행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다.

원암리 밤나무골에 있는 두개의 화약창고와 두개의 커다란 봉분에 대하여서는 온 나라 인민이 알고 세계가 안다.

웃창고에서는 어린이들이, 아래창고에서는 어머니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여 백둘어린이묘와 사백어머니묘가 생겨났던것이다.

그곳들에는 나의 어머니와 두 형이 안치되여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필경 백삼어린이묘가 되였을것이다.

60여년전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1950년 12월초 깊은 한밤, 5살밖에 안되였던 나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형들과 함께 창고로 끌려갔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 기나긴 추운 겨울밤을 지새웠다.

미제원쑤들은 조선의 에미와 애새끼들이 죽을때까지 같이 있는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이다, 에미와 애새끼들을 서로 갈라놓아 간이 마르고 피가 말라죽게 하여야 한다고 떠벌이며 서로 다른 창고에 갈라놓았다. 밤나무골안은 순간에 자식들을 애타게 찾는 어머니들의 피타는 웨침, 어머니들을 부르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으로 차고넘쳤다.

창고의 한쪽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울던 나는 지쳐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떠보니 미제야수들은 굶어죽고 얼어죽고 애가 타서 죽은 어린이들과 아직 살아서 움직이며 먹을것을 찾는 어린이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마구 뿌리였다. 그것이 물인줄 알고 마시는 아이들도 있었다.

미제살인귀들은 밖으로 창고문을 걸고는 공기창문으로 불뭉치를 던지였다. 순간 아이들이 움직이는 불덩어리들로 되였다.

사정없이 휘감기는 불길속에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엄마를 부르던 그 시각 어머니들이 갇혀있는 아래창고에서는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살인귀들은 어머니들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수류탄까지 던져 그들모두를 처참하게 학살하였던것이다. 이것이 미제가 신천땅에서 쫓겨가면서 마지막으로 감행한 만행이였다.

나는 창고 한쪽구석에 있다나니 다행히도 몸에 휘발유가 묻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속에 깔리우고 연기에 질식되여 나는 그만 의식을 잃었다.

답답하고 숨이 차 깨여보니 아이들의 시체가 무겁게 나를 누르고있었다. 그것을 비집고 나왔는데 어떻게 창고문이 열려져있었다.

나는 무서워 울면서 새까맣게 타버린 아이들의 시체를 타고넘어 밖으로 기여나왔다.

후에 알고보니 딸과 외손녀의 시체라도 찾아보려고 창고문들을 열어놓은 최용하할아버지에 의해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수 있었던것이다.

미제야수들은 나의 아버지 주준일도 당시 신천군 정미공장의 모범로동자라고 하여 두대의 소달구지에 다리를 갈라매고 소를 반대방향으로 몰아 사지를 찢어죽이였다.

미제는 신천땅에서 쫓겨간 후 저들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는것이 두려워 수차례나 폭격하였지만 밤나무골 화약창고는 그대로 남아 오늘도 미제의 야수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자라난 나는 그 원한을 천백배로 복수할 일념을 안고 총을 잡고 군사복무를 하였다.

제대후 나는 오늘까지 수십년세월을 밤나무골 화약창고앞에 서있다.

나는 참관자들에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날의 환경과 경위만을 해설해주지 않는다. 자기 인민과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것을 해치려는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정신을 인민들의 뼈에 새겨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복수를 벼리는 군대와 인민들속에 신천땅의 103번째 어린이가 오늘도 살아있으며 104번째, 105번째 어린이라는 말자체가 더는 없을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신천박물관 명예관장 주상원

《인권옹호》를 떠드는 미국의 흉계

세상에 미국만큼 《인권옹호》, 《만민평등》에 대해 떠드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진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어느 한 신문과 방송이 8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중 70%가 미국은 아직도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흑인인 현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인종차별이 더욱 심해졌다고 대답하였다.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희생물로 되고있다.

지난해 12월 뉴져시주에서 경찰이 죄없는 흑인을 총으로 쏘아죽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였다. 사건발생당시 피해자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려고 차에서 내리다가 경찰이 무턱대고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게 흑인들이 경찰들의 총탄세례를 받은 례는 수다하다. 지난해 있은 퍼구슨사태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미사법당국이 경찰들의 살인행위를 《정당방위》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최근 국제문제전문가들에 의하여 미국에서 소수인종 및 민족들의 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보장을 위한 국제규범들을 위반하고있는 사실들이 수많이 밝혀지고있다. 그가운데 관따나모미해군기지 감옥에서의 수감자들에 대한 야수적인 고문만행, 학대행위가 계속 드러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권보장》의 화려한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코를 들이밀고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국제적여론을 환기시킨 다음 침략무력을 내몰아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짓밟아온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고 관례이다. 지난 세기 말엽에 있은 이전 유고슬라비아전쟁도 다름아닌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벌어졌다.

비단 이 나라만이 아니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해서도 《인권》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지난해에만도 미국무장관을 위수로 하여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민주주의, 인권, 로동담당 차관보, 《북조선인권특사》,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등이 나서서 《인권문제》를 거들며 공화국을 헐뜯는 발언들을 늘어놓았다.

올해 남조선의 강원도 파주시에서 있은 반공화국삐라살포에도 20여명의 미국《인권재단》모략군들이 가담하였다.

하다면 저들의 인권유린행위는 덮어두고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흉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화국의 《붕괴》와 《압살》이다.

미국은 이 목적달성을 위해 정치적압력과 경제제재, 봉쇄, 핵을 동반한 군사적위협 등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통하지 않게 되고 공화국의 위력이 날로 강화되자 반공화국《인권》모략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데 달라붙게 된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인권》모략공세를 통해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나아가서 《인권》을 걸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하고있다. 지금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리면서 이 지역에 미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공화국이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미대결력사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기록하여온것처럼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도 역시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당국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는 미국인들

남을 시비할 자격이 있는가

《인권》이라고 하는 패쪽을 들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놀아대는 꼴이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유엔무대까지 더럽히면서 조선인민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날조해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 알렉싼드르 워론쪼브는 자기의 글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인권》을 자기의 제국주의침략적목적에 도전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1차 공격무기로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이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전통적인 전술내용에 포함시키고있다고 하였다.

워론쪼브의 글에도 인용된것처럼 지난해 11월 자본주의《력사》와 《문명》을 떠들며 저들의 《발전》을 자랑하던 서방이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구새먹은 《인권》타령에 합세하여 자기의 주견이나 주장도 없이 대조선《인권결의》에 손을 들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이 나라들이 떠드는 《발전》이라는것 자체가 약소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 이루어진것이다. 그처럼 피로 얼룩진 과거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서방나라들은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하여 쩍하면 《인권문제》가 어떻소, 《자유》와 《민주주의》가 《국제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소 하며 비방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서방나라들의 인권실태를 몇가지만 보기로 하자.

영국에서는 지난해 3. 4분기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업도 없는 청년들의 수가 95만 4 000명에 달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실업자수가 340여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벨지끄에서도 지난해 12월 전국도처에서 각계층의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는 당국의 그릇된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파업을 일제히 벌려 학교와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교통이 마비되였다. 프랑스의 빠리와 뚤루즈시, 뽀르뚜갈의 리스봉과 도이칠란드, 그리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항의투쟁이 온 한해동안 벌어졌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유럽동맹안의 대다수나라들이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공모한 사실자료들이 폭로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전해진데 의하면 영국을 비롯한 21개의 유럽나라들이 미중앙정보국에 비밀감옥과 심문기지를 제공하고 일부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랍치활동을 방조하는 등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한다.

언론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중앙정보국의 고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인권문제에서 유럽의 위선을 적라라하게 폭로해준다고 평하였다. 이로써 세계는 신사연 하는 유럽나라들의 위선적정체를 다시한번 똑똑히 새겨보게 되였다.

물론 유럽특유의 정치적위선이 그리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감행된 흑인청년에 대한 살해사건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시위를 류산시키기 위해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70여명이나 련행하였다.

몇가지 자료만 놓고보아도 남을 시비할 자격조차 없는 서방이다.

카나다상원 법협회 성원이며 국제형사전문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블래크는 자기의 글에서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군유골조사팀의 성원으로 와있던 미군소좌가 한 말을 전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에 대하여) 우리가 서방의 보도매체들로부터 들은 모든것, 우리의 상급들이 우리에게 한 모든 말이 완전히 그리고 모두 거짓말이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사람위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는 그 무슨 《인권문제》라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다.

서방은 감히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론하기전에 제 코부터 씻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영국에서 당국의 부당한 교육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고 화

《달빛아래 련인》

사위에 고요가 깃든 밤, 외따로 떨어진 호젓한 담모퉁이에서 젊은 남녀가 남모르게 조용히 만나는 광경이다.

초롱불을 켜든 젊은이는 마음속의것을 털어놓으며 무엇인가 말하고있는데 분명 춘정에 못이겨 부모의 눈을 피하여 나왔음직한 처녀는 눈꼬리를 치켜올리고 새침한 표정으로 아무말없이 서있다.

인적은 이미 끊어진지 오랜듯 얼레빗같은 조각달만이 둘이 만나는것을 띠여보며 린색하게 빛을 뿌리고있다.

젊은 남녀는 그 차림새로 보아 평민이 아니고 량반댁 도령과 랑자인게 분명하다. 화가는 낮에는 《도덕군자》요 《요조숙녀》요 곧잘 외우면서도 밤에는 도덕과 례의에 어긋나는 이런 부정한 행동을 하고다니는 량반집자식들의 생활리면을 드러내놓았다.

한편 그것은 봉건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인간상을 묘사하고 당시 젊은이들의 감정과 지향을 표현한것이기도 하다.

그림은 신윤복(1758년-?, 자; 립부, 호; 혜원)이 그리였다.

* * *

내칠보의 운해　　본사기자 최원철

수많은 봉우리들과 기묘하고 색다른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 장엄하고 황홀한 산악미를 나타내고있는 내칠보의 아침, 천태만상의 그 기암괴석들과 짙은 록음이 어울린 속에 운해까지 끼여 조화를 이루니 골마다 천하절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582136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